



時計塔

SIGETOP



2015년 7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2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발행인: 徐倫錫
편집인: 李元澤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就任辭

신임회장 서윤석(68)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위의 여러 동문께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앞으로 일 년간 북미주동창회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대 동문들의 숫자는 약 1만4천명이며 미국에는 현재 1200명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미주 동문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즉 동창회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창회도 당연히 그 시간의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여야 합니다. 다수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앞날을 생각하여 젊은 세대인 105명에 가까운 GP(관악세대 1980년 후 졸업)그룹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세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새로 나온 Directory에서 변화를 보시는 것(문대옥 동문의 노력)처럼 미래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창회 사무실과 시계탑 편집과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 장소는 현재와 같이 뉴욕, 뉴저지에서 있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신임 회장단이 있는 워싱턴 근교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송년회가 12월 6일(일요일)에 워싱턴 근교 Virginia의 the Westin Hotel Tysons Corner에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워싱턴 지역 동문들과 같이 단합하여 서울대학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소통하면서 모교애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년 Medical Scientific Convention도 워싱턴 근교 Virginia에서 열립니다. 날짜는 2016년 6월 1일 - 5일이 될 것입니다.

Northern Virginia의 명소인 Lansdowne Resort에서 골프가 먼저 있으며 미국역사를 증명하는 수도 워싱턴의 관공회 Convention 중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6월 5일)에 있습니다. 즉 Scientific Medical Convention(at the Westin Hotel Tysons Corner)은 6월 3(금) - 4(토요일 오전)이 될 것입니다. Grand Banquet도 토요일 저녁입니다. 서울에서도 동문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들, 지난 반세기간 미대륙에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온 우리 미주 서울의과대학 동창회가 더욱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동문들이 이룩하신 귀중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는 동창회로, 기쁜 일은 물론 슬픈 일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창회로 또 새 천년을 살아가기 후세대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동창회로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후배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선배님들께는 존경과 경양을 드리는, 동문간에는 서로 깊은 이해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창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요. 나라가 없는 백성은 서러운 것처럼 동창회가 없는 곳은 외로울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문들께서 이룩한 우리 동창회는 동문분들께서 존재하는 한 계속 우뚝 솟아 있어야 합니다. 동문들께 다음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동창회비를 열심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매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시계탑'의 발행과 우송비 그리고 동창회 사무실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회장단은 비용을 아끼며 살림하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의문이 없도록 가능하면 회계내역을 공개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계탑에 원고를 보내주시요. 모든 동문들께서는 의료인으로 사시면서 체협에서 올라오는 귀중한 이야기가 반드시 한 편씩은 있을 것입니다. 몇몇분의 한정된 필진의 글보다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인생경험이 담긴 글을 환영합니다. 값진 의료봉사 이야기도 지나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면 환영합니다. 시계탑 신문은 동문간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 모집하는 농담골목, 서예공모(붓글씨), 사진응모에도 많이들 참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각학년 대표님들과 지역 대표님들께서는 그 모임이 총동창회의 행사와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금년의 60년도 64년도 졸업 동문들처럼 동창회행사에 대거로 참여하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용계(68) 동문의 부인이신 Sue Shin 께서 새 회장단의 건투를 빌면서 그린 삽화.

끝으로 지난 일년간 살림을 이끌어 주신 서인석 회장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와 지난 일 년간의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관심양면으로 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현재 우리 고국의 의료계가 담당한 MERS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내의 모든 동문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더욱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離任辭

회장 서인석(73)



지난 토요일, 마지막 Executive meeting과 Green Project를 결산하면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고, 일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2000년 봄 동형근 회장님의 열성에 끌려 Green Project를 시작한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GP 나무가지에 열매들이 주렁 주렁 열리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두 함께 손잡고 열심히 달려온 지난 일 년이었습니다.

몇몇 주요 멤버들이 본업을 뒤로 제쳐두고 자신들을 몰인하고 있는 그 열정을 지켜보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일 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창규(81), 오무연(89), 이선희(81), 남영재(94) 등의 활약으로 젊고 열기가 왕성한 15명의 CME speaker를 포함하여 총 35명의 GP 동문들이 참가하여 2015년 학술대회에 젊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선배 동문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앞으로 GP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이 기약되는 바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라는 어느 노래 한구절이 생각납니다. 선배님들께서 온 정성을 다하여 설립하시어 이끌어오신 우리 미주 동창회를 앞으로 후배 동문들이 새 세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일당백의 추진력으로 더욱 발전시켜 빛나게 키워가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문들이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Banquet도중 시계탑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주 동창회는 1928년 졸업 선배님부터 2014년 졸업 후배까지, 86년 차이가 나는 복합세대가 어우러진 대가족입니다. 선배 동문님들의 발자취를 정리하다보니, 지난 42년간의 북미주 동창회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계탑의 위력을 새삼 절실히 느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후배 동문들은 선배님들의 경륜과 눈물과 환희가 고스란히 담긴 우리 동창회의 등뼈이자 정신적 지주인 시계탑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대신에, 현대 인터넷 문명의 속도에 발맞추어 선배님들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더욱 알찬 시계탑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2세대의 명단이 새 Directory에 첨부되어, 1세와 2세 의료인의 우리 대가족을 서로 연결해주는 좋은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한 2세대의 information은 시계탑과 website를 통해 계속 update 해나가시기를 다음 회장단께 부탁드립니다.

북미주 동문들만을 위한 "함춘공로상"을 마련해주신 강대희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주 동창회에 끊임없이 협조해주신 강신호 명예 회장님께서 이번에도 "강신호 회장 Lectureship"을 기꺼이 협찬해주셨습니다. 첫 함춘공로상을 수상하신 이만택(57) 선배님과 첫 keynote speaker로 선정되신 강유구(71) 선배님께 축하를 드리며, 저희 동창회가 존속하는 한 매년 훌륭한 수상자들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시기를 빕니다.

지난 일년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동기 회장, 지부 회장, 이사 및 임원 여러분들, 특히 이원택 시계탑 편집장님, 최준희(64) & 오용호(72) 공동 학술대회장님, 강유구(71) 학술위원장님, Mrs. 김원정(75) & Mrs. 한민우(75) non-CME공동 위원장님, Directory를 위해 애쓰신 이성근(66) 선배님, 문대옥(73) 전회장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시거나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 회장단들께도 많은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lendar of Events SNUCMAA of NA

2015

July 1st	Inauguration Day
July 11 (Sat)	Sigetop Editorial Meeting (E) 1pm, (W) 10 am Double Tree Hotel at New Jersey
Sep. 12 (Sat.) 4pm	1st Board of Director Meeting at Virginia
Oct. 10 (Sat.)	Sigetop Editorial Meeting (E) 1pm, (W) 10 am
Dec. 6 (Sun.) (5 pm start)	Annual Ball at Westin Hotel, Tysons Corner 1st Delegate Meeting (3:30 pm start)

2016

January 9 (Sat.)	Sigetop Editorial Meeting (E) 1pm, (W) 10 am
March 12 (Sat.) 4pm	2nd Board of Director Meeting at Virginia, Westin Hotel Tysons Corner
April 2 (Sat.)	Sigetop Editorial Meeting (E) 1pm, (W) 10 am
June 1 (Wed.)-June 5(Sun.)	Annual Convention and Golf, Washington Tour
June 2 (Thur.) 4 pm	2nd Delegate Meeting at the Westin Hotel Tysond Corner
July 1st	Inauguration of New President

미주 동문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

동창회장 홍정용



존경하는 전임 서인석 회장님과 신임 서운석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2차 미주동창회에 함께 해주신 강대회 모교 학장님, 오병희 병원장님과 함께 14,000여 명의 동창회원을 대표하여 성공적인 개최와 환대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 전쟁의 상흔 속에서 의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첨단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찍이 미국의 선진 의학을 받아들이고 고국에 전파하신 미주동문들의 선각자적인 정신으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2년 동안 미주동문들의 환희와 고난의 역사를 담아왔고, 주옥 같은 작품들을 기고해 주시면서 동문들에게 서로의 경험과 꿈과 생활을 전달해주는 시계탑 편집 관계자 및 선·후배 동문들이 서로의 근황을 알고 안부와 동정을 나누며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한 2015년 주소록 발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미주동창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혼신을 다하신 전임 서인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미주동문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6월

제2차 대의원회 초록

- 일 시: 2015년 6월 4일(목) 오후 4시
- 장 소: Glenpointe Marriott, Teaneck, NJ
-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채규철(59) 최종진(59) 강창욱(61) 이희경(61) 박찬형(62) 정정수(62) 이흥빈(63) 추재욱(63) 한기현(63) 권정덕(64) 조동준(64) 최준희(64) 허선행(64) 홍선경(64) 신백호(65) 민발식(66)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서운석(68) 김병오(69) 육순재(69) 강유구(71) 강창홍(71) 강태수(71) 김성환(71) 김일영(71) 배성호(71) 이원택(71) 석창호(72) 오용호(72) 나두섭(73) 문대욱(73) 서인석(73) 김원정(75) 한민우(75) 백승원(79) 이선희(81) 한창규(81) 심인보(83) 박성철(99)
- Proxy: 김용식(55) 정구영(57) 이재승(61) 황현상(61) 송영두(62) 김태환(64) 우준균(67) 이건일(68) 엄규동(69) 조영갑(70) 김유식(71) 조세진(71) 김치갑(79) 이승호(79) 이영인(86) 오무현(89) 안상훈(94) 남영재(94)
- Guest: 정준기(77), 오인환(SNUAA 회장)

1. 성원 점검후 오후 4시 개회를 선언함.
2. 2014-2015 제1차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와 제청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지난 일년간 돌아가신 동문들에 대한 조의를 포함.
4. 회장 인사 (서인석): 참석하신 모든 임원, 이사, 대의원 및 guest에 감사를 드림.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동문 및 가족들께 감사를 드림.
5. 총무보고 (한창규): 지난 일년간 있었던 Green Project 모임 및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함. Unfinished Business는 각 분과 위원회 보고시 함께 의논할 예정임.
6. 재무보고 (심인보): 지난 회장단의 결산보고는 시계탑에 실렸음. 동창회비 \$73,415 (594명), Directory fund donation \$39,045, convention fund \$24,950 등 지난 이사회 이후 약간의 진척이 있었음.

Committee 보고:

- Convention Committee (최준희 & 오용호 공동위원장): Pre-convention 골프 참가 인원이 약간 저조했지만, 날씨, 골프장, 호텔 등 모두 만족스러웠음. 학술대회의 모든 준비를 예정대로 끝냈음. 금요일 밤 호텔에서 있을 Banquet 동안 시계탑 4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임. 토요일 밤 요트에서 거행될 Grand Banquet는 버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엄수가 꼭 필요함.
- Scientific Committee (강유구 & 한창규 공동 위원장): 금요일 7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토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CME 및 non-CME를 가질 예정임. 15명의 young alums (80년 이후 졸업생)과 15명의 elder alums들이 CME session에서 발표할 예정임. Resident, fellow 및 PhD 연구 논문들을 다수 포함시켰음.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 두번의 GP Forum을 갖고, young alum들의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임. Thomas Jefferson University로부터 '10.25' CME I credit approve를 받았음.
- Non-CME Committee (Mrs. 한민우 Mrs. 김원정 공동 위원장): Mrs. 김원정의 급작스런 모국 방문으로 Mrs. 박인영(75)이 Mrs. 한민우와 Non-CME sessions을 진행할 예정임. 참석을 못하는 Dr. 김수신(75)과 Mrs. 김원정의 강의를 다른 연사들로 대체시킬 예정임.
- Local Chapter & Class Representatives Reports: Central New York Chapter (민발식(66), Greater New York Chapter 한민우(75), Class 58 이만택, 59 최종진, 61 강창욱, 63 한기현, 64 홍선경, 65 신백호

(designee), 66 최순채, 69 육순재, 71 강태수, 72 석창호, 75 김원정의 간단한 지부 및 학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지부 및 학년들의 major events (30th, 40th 50th graduation anniversary, 단체여행 등등)를 계획할때 본부와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통해 중복을 피해줄 것을 요청함. 강창욱 전 메릴랜드 지부회장께서 지난 8월 지부행사때 회장이 보내준 flower basket에 모든 지부회원들이 감사했다는 보고를 하시며 지부와 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에 동의하심.

- Finance Committee (최순채 위원장): 지난 회장단의 회계 결산이 전 Finance Committee 한동수(66) 위원장의 audit를 거쳐 마감되었음을 보고함.
- Scholarship Committee (이영인 위원장: 서면보고): 2015 Spring scholarship documents가 지연되어 학술대회 이후에 선정하여 approve를 받을 예정임.
- Fund Raising Committee (추재욱 위원장): Directory을 위한 fund raising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서면보고): \$300,000을 기준으로 지난 10-15년간 큰 변화가 없음. 5월 18일 현재 \$271,923 (GMIB \$394,427) 잔고가 있음.
- Publication Committee (이원택 위원장):
 - A. 그동안 추진해오던 책임편집제를 더 구체화하여 출판위원 중 다음 사항을 맡을 분을 초빙함.
 - (1) 동문동정 - 동기회장께 시계탑 발행 4주 전에 전화나 email로 원고를 청탁할것.
 - (2) 지부소식 - 지부회장께 시계탑 발행 4주 전에 전화나 email로 원고를 청탁할것.
 - (3) 농담골목: 항상 10개 정도의 농담을 확보할 것. 시계탑 발행 2주 전까지 우수상 선정할것. 시계탑 발행 2주 후에 삼금전달 여부를 확인 할것.
 - (4) 학술대회 참관기 (32차, 2015) - 1 page 정도
 - (5) Post-convention tour 체험기 (June 2015) - 1page 정도
 - (6) 2016 사진 공모전 준비 위원 선정.
 - B. 매 호 마다 '특집'을 기획하는 문제: 특정 동기회나 지역회를 집중 취재하는 방법 등.
 - C. 사진공모전 결과:
 - (1) Artistic: 공동 1등: 조의열(66) & 라찬국(64); 3등: 김재석(72); 4등: 김택수(63).
 - (2) Memorable: 1등: 정관호(63); 2등: 임종식(57).
-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이만택 위원장): Donation for the library renovation을 SNU Foundation를 통해서 하면 tax 혜택이 훨씬 수월할 것임. SNU Foundation를 통한 donation 현황을 보고함.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위원장: 서면보고): 7월 시계탑에 2015년 함춘의학상 공고를 게재할 예정임.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후 모교 동창회 본부에 우수할 예정임. 회장이 금년부터 미주동문들에게 암묵적으로 주어 오던 quarter제가 없어졌음을 보고함.
-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Nominating Committee (김성환 위원장): 차차기 회장에 한민우(75), 2015-2018년 이사에 채규철(59) 이희경(61) 김택수(63) 최준희(64) 허선행(64) 김홍서(69) 이성준(70) 한창규(81) 심인보(83) 조형기(92)를 추천, 만장일치로 인준함.
- Office Management Committee (강창홍 위원장): 동문들의 전화연락은 주 5일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내로 자제해주시길 것을 시계탑에 공고했음.
- Green Project Committee (오무현 위원장): 매달 가져온 GP meeting, phone conferences와 Facebook SNUCM를 통해 GP member들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율 해왔음.

110명 가량의 Green Project member들의 directory information을 수집, 본부에 제출했음.



Annual Convention: 15명의 GP CME speaker, 2명의 non-CME speaker와 4명의 GP Forum speaker들의 bio sketch 를 abstract book에 실었음.

6월 6일(토) 오후와 6월 7일(일) 아침에 있을 GP Forum I & II 동안 'Private Practice Building', 'Research Career Development', 'Status of women in medicine in SNU', 'Collaboration with

- SNUCM', 'Communication via IT' 등을 심도있게 발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임.
- Silver Committee (허선행 위원장): 이번 post-convention tour와 병행하는 silver committee tour에 46명이 참가할 예정임.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지난번 지원한 CoCo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
- Directory Ad hoc Committee (문대욱 위원장): 이성근(66) 선배님과 Office Manager인 Mrs. Jamie Kim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 새 Directory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300여명의 2세들의 information이 수록되어 있음. 새로 보완되는 information은 시계탑에 게재는 물론, insert로 모든 동문들께 보내드릴 예정임.
- 1200부를 출판할 예정이며 약 \$3-4정도의 우송료가 예상됨.
- Community Outreach Ad hoc Committee (이승호 위원장): 박찬형(62), 임종식(57), 최용성(61), 한혜원(61), 한수웅(61), 추재욱(63)동문들께서 주축이 되어 "Korean-American Cancer Disparity" Ad-hoc committee를 결성하였음. KAMA 및 SNUAA와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임. 후배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람.
- New Business**
- 서인석 회장이 아래 여덟 가지 new business를 제시함. 시간상 new business는 6월 7일 (일) 아침 President Forum에서 토의하기로 결정함.
 - (1) Donation for SNUCM Library Renovation.
 - (2) Updating Directory information of 2nd generation in medical field.
 - (3) How to attract GP members.
 - (4) 함춘공로상.
 - (5) 강신호 회장 Lectureship.
 - (6) Updating History of SNUCMAA of NA.
 - (7) Membership Fee Drive.
 - (8) Registration Fee.
- 지난 일년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모든 임원, 위원장, 이사 및 대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단체 사진을 끝으로 5시 40분에 제2차 대의원회를 마침.

Prepared by 총무 한창규(81)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제1회 합춘공로상 수상 이만택(58) 동문



모교 발전과 의학발전 및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미주 회원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모교에서 신설한 합춘공로상에 그 첫번째 수상자로 58년 졸업 이만택 동문이 선정되어 지난 6월 6일 선상 banquet에서 강대희 학장으로 부터 거금(?) 1천만 원을 수여 받았다.

이 동문은 필라델피아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활약하면서 본회 및 미주한인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문화를 미주류사회에 전파하는데 헌신하였으며 오랫동안 서울대미주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많은 모교활동에 솔선수범함은 물론 의대 동문들의 기부금이 의대동창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남가주 지부 소식

남가주 지부의 앞으로 있을 주요 행사들

1. 선후배의 밤

일시: 8월 23일(일) 오후 6시-10시, 장소: Old Ranch Country Club in Seal Beach, 회비: Donation 받습니다.

2. 가족 캠핑(서울대 남가주 동창회와 합동으로)

일시: 9월 5일(토) - 9월 7일(월)장소: Mammoth Lake

출발: LA에서 떠나는 관광버스 준비됨

숙박: 캠핑- 8월 5일까지 동창회로 연락,

호텔- 하룻밤에 120불 씩(전화 1-800-466-8356, SNU group #M027600616)

2015년도 기부금 현황:

조동준(64) 100 김동훈(77) 1,000, Seoul Medical Group 1,000

연락처: 김동훈 회장 Cell: 562-455-7770 / Email: dhkim99@yahoo.com

버지니아 지부 소식

Virginia Chapter 모임이 2015년 7월 18일(토요일) 우래옥에서 있었다.

회장 김진수(66), 총무 조병선(71) 주선으로 주광국, 서윤석, 조병선, 정재성, 이종희, 박수용, 박인영, 신용계, 김주평, 이선택, 김병오, 김진수, 김용덕, 라길진, 김부근, 한달수, 서희열, 이종두 동문 등이 참석하였다. 신원석(88)과 송경민(09)동문은 사진에 빠졌음 - 서윤석(68)



한미 번역 문학가 협회

LA를 중심으로 10여명의 1세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6월 20일 오후 Korean-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을 발족하고 초대회장에 본보 편집인 이원택(71)동문을 선임했다. 목적은 한국문학을 미 주류사회에 심도 있게 소개하고 영미 문학을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으며 우선 1세 문인들이 시작해서 1.5세와 2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으로 관심있는 동문이나 가족들의 연락을 바란다. 이원택 C. 562-743-1436 / email: wonlee0120@gmail.com

동문 자제 소식

허선행(64)동문의 자제 Warner King Huh, MD는 지난 6월 18일 UN 본부에 초대되어 'Prevention Of Uterine Cervix Cancer'에 대해서 각국 대사님들과 UN 임원들께 강의를 했다는 소식이다. Dr. Huh는 Professor and Endowed Chair 이면서 Director Of Gynecologic Oncology Division and a Senior Scientist, Comprehensive Cancer Research Center at University of Alabama in Birmingham로서 일하고 있다.

신간 소개

카렌 호나이의 분석정신

금년 3 월말에 서울 하나의학사에서 출판된 "카렌 호나이의 분석정신"을 간단히 소개한다. 과거 이 삼십년 동안 '노이로제' 라는 말을 별로 드를 수 없게되었는데 노이로제라는 정신과에서 취급하는 병이 없어진것이 아니라 정신 병 분류 방법을 원인적인데서 증상 위주로 바꾼데에 기인한다. 노이로제라는 정신질환은 정신병(psychosis)과 달라서 정상적으로 용납되는 병으로 기능장애를 보이거나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노이로제에는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증상노이로제와, 증상은 뚜렷이 없으나 완벽성, 자기 도취성, 순종성, 무관심 등과 같이 마치 성격인 것처럼 나타나는 성격노이로제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카렌 호나이는 프로이드 다음가는 위대한 정신분석가로 이 사람이 이 성격 노이로제라는 정신질환을 제시 설파한 것이다.



나의 이 책은 카렌 호나이의 이 성격노이로제에 대한 이론을 한글로 소개하는 책으로 모든 한국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치료 제공자와 자기 수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특히 이 시점에 이 책을 소개하는 큰 이유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social network system, 특히 smart phone의 광범위한 보급과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성격노이로제의 환자로 발전되는 현상에 착안한데에 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다보는 습관도 기르고 자신의 노이로제적 성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김병석(59, 대뉴욕) 구입처: 한국서점, 뉴욕 718-762-1200



시계탑 발간 40주년 기념행사

제32차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의 하나로 6월 5일 이원택 편집장의 사회로 시계탑 창간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서량(69) 편집위원의 은은한 클라리넷 축주를 시작으로 10년간 편집장을 맡았던 김병석(59) 편집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에서 오신 강대희 학장과 오병희 병원장의 축사, 서윤석(68) 편집위원의 축시 낭송, 조만철 의빈의 장엄한 트럼펫 연주 후에 노용면(55) 초대편집장을 비롯한 전 편집위원과 유니온 프린팅의 황창근 사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photo contest 시상식에서는 예술사진 1등에 조의열(66)동문, 3등에 김재석(72), 기념사진 1등에 정관호(63)

동문이 상장과 상금을 전달 받았다. 사진: (위) 좌로부터 역대편집장들인 서인석(73) 노용면(55) 김병석(59) 이희경(61) 허선행(64) 서윤석(68, 편집위원), 이원택(71, 현 편집장) 임안무(69) 서량(69) 이선희(81, 편집위원) 나두섭(71, 편집위원), (좌) 축주를 하는 서량(69) 동문과 노용면 초대 편집장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서인석 회장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및 심사평

PHOTO CONTEST 투표결과

♣ Artistoc Pictures (예술사진)

- 1등 조의열(66) AC 9
- 1등 라찬국(64) BA 1
- 3등 김재석(72) CA 5
- 4등 김택수(63) AA 8

♣ Memorable Pictures (기념사진)

- 1등 정관호(63) EXHIBIT 19
- 2등 임종식(57) R-2



1등 조의열(66) 대리수상 하는 Mrs. 조의열과 정관호(63), 김재석(73) 동문

제1회 사진 공모전 심사평

동창회보 <시계탑>이 다양성과 대중성을 표방하는 Post-Modernism에 발맞추어 기획한 Photo-Contest에 기념사진 부문 4명, 예술사진 부문 10명 등 총 14명이 응모하여 5명이 기념사진 부문에, 18명이 예술사진 부문에 투표한 결과를 정리 하면서 느낀 소감과 향후 운영에 대한 소견을 펴려해 봅니다.

첫째: 사진 공모전을 일회성 반짝쇼로 그치지 말고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 사진을 참관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진의 우수성에 감탄 하였으며 그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일정한 guideline에 의해 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출판위원회 내에 2-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사진 분과 위원회' 를 두어 공모전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금년도에는 투표율이 저조하여 (기념사진 부문은 5명의 동문과 예술사진 부문에 8명 남짓한 동문만 casting을 하였기 때문에) 예술사진 부문은 10명의 외부인사를 추가해서야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원의 3대 의무는 (1) 회비 납부 (2) 시계탑 완독 (3) 투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remind 해 드립니다.

다섯째: 금년도에는 작품 위주가 아닌 작가별로 투표를 하고, 대표작은 예술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문가' 들이 뽑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출판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우열을 가려 순서대로 게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점수 계산은 한 사람당 7점씩 배당해서 1등에 3점, 2등에 2점, 3등과 4등은 1점씩 계산해서 합계한 후 득점 순서대로 등수를 뽑았으며 작가가 자신에게 투표한 경우 even-distribution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7점 한도 내에서 투표자의 재량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물표 허가' 방침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어떤 동문은 예술작품에 출품해도 될 작품들을 기념작품에 출품하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동문은 작품은 뛰어났으나 너무나 평범한 소재를 선택해서 투표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연하면, 기념작품은 작가의 창의성이나 예술성보다 역사성과 공감성을 중요시했으며 예술작품은 독창성과 기술성을 높이 샀습니다.

여덟째: 이번엔 출품된 작품들은 정말 몇몇이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라 학술대회 때 slide 상영하고 끝나고 나서 학술대회 highlight DVD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가들이 '공동 사진첩'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동창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반반 부담?)

아홉째: 두 걸음 더 나아가서, 동문들의 그림, 서예, 사진들을 모아 <시계탑 회화집>을 발간하는 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열째: 우리 동문들은 하나같이 밝히고 또 밝힌 영재들이십니다. 그동안 선택된 인간으로 사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요번 시상에 누락되신 분들도 섭섭히 생각 마시고 심사위원들의 불민함을 탓해 주십시오.

하긴, 동문들끼리 우열을 가려봐야 도토리 키 재기일 뿐이니 참가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시계탑 편집장, 이원택

김철규(64) 동문 네 번째 에세이집 발간

서울에서 소아과 개업의로 활동하다 은퇴한 김철규 동문이 4번째 에세이집 '사람의 실천'을 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한 김동문은 노숙자 자선 병원인 요셉병원에서 10여년간 봉사하기도 했다.

박근수(49) 선배님께서 작고

오랫동안 뉴욕 주와 후로리다 주에서 사시던 박근수 전 회장님께서 지난 4월 4일 작고하셨습니다.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노용면(55)

故人 박근수 선배님의 冥福을 기원합니다. - 後學 이희경(61) 再拜

김익창 (56) 동문 별세



그동안 Parkinson 씨 병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Luke Kim 동문이 지난 7월 11일 캘리포니아의 Seal Beach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김동문은 1930년 신의주에서 출생해서 6.25의 참상을 겪으면서 남하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1956년 도미했으며 재미한인정신과의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U.C. Davis에서 35년간 임상정신과 교수로 활약하셨습니다. 그는 한.영문판 자서전 <사선을 넘어서: Beyond the Battle Line>을 남겼으며 장례식은 7월 18일 그가 오랫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의 Sacramento에서 치루어졌다.

동문 강성근(62) 형을 보내며

너무나도 갑자기 다친 슬픈 소식이기에 마음에 마비증을 느껴 믿어야 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좋아하는 Steak 집에서 포식을 즐겼는데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2014년 12월 29일 영생으로 가셨습니다.

키는 작지만 손과 팔을 만져보면 백년을 넘게 지탱할 몸이었지만 '인명은 재천'이라는 옛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50여년의 동반자 Sue, 애지중지 키워놓은 두 딸 Jane과 Susan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두고 떠나는 애석한 마음, 오죽이나 아팠겠습니까마는 어찌 그렇게도 서둘러 가는지 모두들 애석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당에서 슬픈 영결식을 마치고 여러 동기들이 모여 앉아 옛날 얘기가 된 재미 있고 웃었던 일 섭섭하고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슬픔속에서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저승에서 머지않을 세월에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을 감지하며 Sue께서 마련한 저녁식사에 감사했습니다.

형은 참으로 많은 재주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으로 타고난 그 좋고 풍성한 목소리, 또 친구를 모아놓고 웃겼다가 또 울게도 만드는 그 humorous한 재치, 더구나 humble한 성격까지 겹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재미 16회 동기 초대대표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동기 모임을 주도했고, 그리고 마산 육군 군의학교 제 38기생이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꼬마중대장. 작은 체구로 후보생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큰 철모와 긴 총대만이 보이는 어린 모습에 그 우렁찬 소리로 중대병력을 lead할 때면 마치 만화를 보는 듯 했다는 후보생들의 얘기가 기억납니다.

나는 형과의 동기의 인연도 있지만 동성동본이라는 친지함이 겹쳐 더 가까웠습니다. 형의 부친께서는 우리와 의과대학 동문이시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3회 졸업생으로 서울에서 내과를 개업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의 은사이신 나세진, 진병호, 김석환 그리고 오진석 교수님들과 동기로써 교류가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너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겠네" 하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형은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헬리데이 시즌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오는 손주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해가 지고 새해가 되면 St. Augustine에 있는 World Golf Hall of Fame의 골프코스에서 골프도 치고 또 좋아하는 바다와 그 파도소리가 들리는 식당에서 매년 즐기던 스테이크를 즐겨보자는 기약을,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영생을 택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벅찰 뿐입니다. 골프실력은 중간치였고 driving 거리는 Sue만 못해도 진심인지 쓴 찬사인지는 몰라도 와이프의 긴 드라이브 샷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니 저승에서나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바다를 바라보고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balcony에서 잠을 잘 때는 천국을 헤메이는 것 같다는 형의 표현을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며 평화스러운 삶을 천국에서 즐기시기 를 빕니다. 때가 되면 하늘의 섭리에 따라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 동기 강광원(62, 후로리다) 드림

훌륭한 후배님을 떠나보내며 (고 박영명 박사 영전에)

예견되었던 사실이나 막상 부음을 접하니 눈물이 저절로 한없이 쏟아집니다. 후배님 이었으나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간 선배 같은 분이였지요.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천사'가 바로 이 분이지요. 천사를 바로 옆에 두고 동시대에 살 수 있었던 우리가 행운이며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몸소 실천함으로써 고인은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늘과의 약속이 그것 이지요. 자신과의 약속, 가벼웠지만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어린아이들 병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의 길을 택한 것, 신생아 중환자 진료의 세계적 대가가 되었지요(34년간 Washington Hospital Center에서 신생아 중환자 진료).

타인과의 약속, 결혼 때 하는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등등 결혼 서약 내용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마도 고인은 가장 충실히 이 서약을 끝까지 지킨 배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늘과의 약속, 신앙인으로서,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로, 시카고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돌보아주는 신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신부님들을 돌보아주며 지속적 도움을 큰 소리 내지 않고 주위온 사실, 이외에도 열거 못한 수많은 소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해온 분이 바로 고인 이 었답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보람된 진정한 삶은 살다간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직도 이곳에선 당신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하늘과의 또 다른 이행 못한 무슨 약속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저희들을 두고 홀연히 떠나신겁니까? 야속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벌써 3년이 거의 다되는 시점에 고 박영명 후배님(66년 입학)영전에 그 당시 쓴 글을 늦어도 이렇게까지 너무 늦었지만 여러 동문님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해서 첨부합니다.

참으로 천사같은 좋은 후배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각납니다. 생전에 음악을 그렇게도 좋아해 (그자신도 Violinist)수집해두었던 아끼고 아끼던 수많은 LP 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저에게 선물로 주고 떠나셨답니다. - 아오스딩 문성길 드림

2015-2016 Officers and Committee Chairs

President	Seo, Youn Seok(68)	419 234 4154	younseokseo2004@gmail.com	Green Project	Nam, Myong Ho(81)	301 299 8894	lucy.nam@inova.org
President elect	Han, Min Woo(75)	201 704 7085	tinahan34@gmail.com	Publication	Lee, Won Tak(71)	562 743 1436	wonlee0120@gmail.com
1st Vice President	Kim, Byung-Oh(69)	443 956 3985	drbokim55@yahoo.com	By Law	Rho, Yong-Myun(55)	914 738 4511	ymrhomd@optonline.net
2nd V. Presidents	Cho, Byoung Suen(71)	703 966 4021	byoungscho@hotmail.com	Advisory & Exchange	Lee, Man-Tack(58)	215 913 7519	mmtlee@hotmail.com
	Choi, Andrew K(76)	626 818 4013	thevipsurgery@gmail.com	Nominating	Seo, In Suk(73)	551 587 3212	ins9002@gmail.com
Secretary	Shin, Won Sock (88)	301 697 6555	drshin4me@gmail.com	Silver Project	Kim, Chul(68)	301 299 8437	chulkimob@gmail.com
Treasurer	Joo, Kwang Gook(68)	716 903 2199	kwangjoo@hotmail.com	Office Management	Kang, Changhong(71)	551 206 5253	pplkng@hotmail.com
Associate Treasurer	Shin, Young Kye(68)	703 389 9983	drshin@cox.net	Charity	Choi, Young Ja(66)	203 733 9937	ychoikim@gmail.com
Committee Chairs				Korean-American Cancer Disparity Committee:			to be discussed
Finance	Choi, Soon Chae(66)	908 304 2922	soonchoi@aol.com	Convention Co-Chair	Kim, Jin Soo(66)	571 261 9309	jinskim41@gmail.com
Scholarship	Oh, Mooyeon(89)	201 390 2202	mohpark@gmail.com	Co-Chair	Cho, Byoung Suen(71)	703 966 4201	byoungscho@hotmail.com
Assistant Chair	Lee, Youngin(86)	201 248 1630	fl127@columbia.edu	Scientific Chair	Hahn, Seung Shin(76)	315 247 1626	hahs@upstate.edu
Fund Raising	Chu, Jai Ock(63)	201 306 4221	jaiochu@yahoo.com	Co-Chair	Shin, Kyu Ho(68)	716 574 6641	khshin59@gmail.com
S. Fund Management	Lee, Myunghee(66)	914 844 7439	DocM4@aol.com	Assistant Chair	Hahn, Chang-gyu(81)	610 520 9131	hahnc123@gmail.com
Research & Fellowship	Cho, Sechin(71)	410 440 0213	cho3gene@gmail.com	Non CME Co-Chair	Mrs. Kim Jin Soo(66)		
				Non CME Co-Chair	Mrs. Cho, Byoung Suen(71)		

제19회 함춘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모집 공고

1. 수상인원 및 연구비

- 수상인원: 연구업적 3명 범위내
- 연구비: 함춘동아의학상- 3,000만원(연구업적부문 1명)
- 연구비: 함춘의학상- 3,000만원(연구업적부문 2명 이내)
- 시상: 본회 "함춘 송년의 밤" 행사 석상 (2015년 12월 개최 예정)

2.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심사대상

- A.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정회원으로서 미국의학교육기관, 의학연구기관, 보건의료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회원
- B. 수상후보자의 Lifetime Publication과 연구업적을 제출하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C. 중복수상 희망자는 최근 5년이내 발간 저서 또는 2년이내의 학술전문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심사함.

3. 수상후보자의 추천

- A. 미주내 신청자는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에서 예비심사하고, 미주동창회장이 추천으로 본국 동창회에 등록한다.
- B. 미주동창회원으로 2년 이상 미주동창회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C. 자천과 타천을 모두 환영한다.
- D. 신청서(자천서)와 추천서가 미주동창회 사무실에 상비되어 있음.
- E. 신청/추천 마감: 2015년 9월 15일

- 수상이 확정된 미주동문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연말총회 참석이 장려된다.

Sechin Cho, M.D.
Chair: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NUCMAA of 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maa@yahoo.com (516) 365-5500, (516) 365-5501(fax)

농담 골목

일생에 생일이 몇 번 있지요? 일 년에 한번씩. (면)
누가 하루에 20번 면도를 하지요? 이발사. (면)
유방암은 왼쪽 유방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남자가 오른 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수)

조금 전에 내가 친 골프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잘 보았는데, 이제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철)

외판원과 할머니

전기 청소기 외판원이 외판 농가의 문을 두드리자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외판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 지금부터 할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외판원은 허겁지겁 흙을 퍼다 방바닥에 뿌렸다.

“할머니, 저랑 내기를 하죠. 제가 이 신제품 진공 청소기로 이 흙들을 모두 빨아드리면 할머니께서 청소기 한 대를 사시고 못 빨아드리면 제가 이 흙을 모두 뚫어버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러자 할머니가 안됐다든 듯 멍하니 외판원을 쳐다 보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숟가락을 하나 들고 나와 외판원에게 건네주며 하는 말.

“안됐수... 젊은이,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네...” - 이덕송

아내의 생일 케이크

남편이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제과점에 갔다. 제일 크고 화려한 케이크를 골라서 케이크에 글을 좀 넣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했다.

“당신은 늙지도 않는구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라고요.

“아, 잠깐, 한 줄로 쓰지 마시고, 위에도 ‘당신은 늙지도 않는구려’ 라고 쓰고 밑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라고 써주세요.”

잠시 후 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함께한 파티가 시작됐고 케이크에 불을 붙일 시간이 왔다.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는 순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아내는 그만 기절초풍했다. 케이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늙지도 않는구려. 밑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 - 주광국(68)

영문 번역

- 1. 네 차만 차고 내 차는 차가 아니냐? Your car car, my car no car?
2. 있을 사람은 있고 갈 사람은 가라. Isman is, goman go. - 나두섭(73)

Manure... An interesting fact

Manur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everything had to be transported by ship and it was also before the invention of commercial fertilizers, so large shipments of manure were quite common.

It was shipped dry, because in dry form it weighed a lot less than when wet, but once water (at sea) hit it, not only did it become heavier, but the process of fermentation began again, of which a by-product is methane gas of course.

As the stuff was stored below decks in bundles you can see what could (and did) happen. Methane began to build up below decks and the first time someone came below at night with a lantern, BOOM!

Several ships were destroyed in this manner before it was determined just what was happening.

After that, the bundles of manure were always stamped with the instruction 'Stow high in transit' on them, which meant for the sailors to stow it high enough off the lower decks so that any water that came into the hold would not touch this volatile cargo and start the production of methane.

Thus evolved the term 'S.H.I.T.', (Stow High In Transit) which has come down through the centuries and is in use to this very day.

You probably did not know the true history of this word.
Neither did I.
I had always thought it was a golf term.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일시: 2015년 6월 5일 6시
장소: Glenpointe Marriott Hotel, Teaneck, NJ
참석자: 노용면, 김병석, 허선행, 서윤석, 이원택, 이선희

모처럼 편집위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였으나 만찬회의 와중에서 이희경, 김명원, 서량, 나두섭 위원들이 길을 잃어 참석치 못했다. 7월호 시계탑은 32차 학술대회에 관련된 기사로 특집을 꾸미게 될 것이며 매호마다 '특집'을 기획하고 특정 동기회나 지역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방법이 논의 되었다.

금년에 시도한 사진공모전은 아주 성과가 좋아 연례행사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편집위원을 포함한 Ad-hoc committee를 만들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시계탑'은 한글판이어야 하나 영문으로 쓴 글도 환영한다는 취지를 재확인했으며 영문 교정은 이선희 위원이 책임지고 보기로 했다. 또한 영문판 조판이 너무 뻑뻑해서 읽기에 불편한 점이 지적되어 황창근 사장이 시정을 약속했으며 '농담골목'에 대한 투고가 저조하여 편집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독창적이고 너무 진하지 않은 '우스갯소리'들을 발굴하기로 하고 촘촘히 연회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7월 11일 동부의 Double Tree Hilton Hotel에서 2차 편집회의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량, 서윤석 위원들이 황창근 사장이 가지고온 초안으로 편집회의를 오후 1시에 시작했다.

서인석, 이선희 위원과 오무연(Green Project Chairman) 동문이 30분후에 서울 의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 6명을 대동하고 와서 인사를 나누었다.

중요한 안건은 전화로 서부의 이원택 편집장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이홍빈 남의 글은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더 신중히 검토하여야겠다고 이번 호에는 올리지 못함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편집위원중 등단 시인인 서량, 서윤석 등이 이 글이 시가 되는지 그 형식상의 문제로도 고민하였다. 사진공모전 담당에 대하여, 전담위원 2명을 두기로 했으며 영어로 쓴 원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계탑은 한글신문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다시 논의 하였다. 영어 article은 환영하지만 이원택 편집장이 제안한 Green Project를 격려하는 뜻으로 영어로만 쓰여진 첫 면의 획기적인 변화는 재고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7월호는 신규 회장단이 교체되는 달이고 그들의 인사말이 우선이라고 동부에 당시 참석한 모든 편집위원들이 주장하였다.

뜻밖의 학생들의 방문은 참으로 반가웠다. 모든 선배님들은 학생들에게 7월 말까지 무사하기를 보람있는 견습을 함은 물론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하였다.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1명이었다. 학생들에게 지난 시계탑 신문을 나누어 주었고 만일에 미국에 머무르는 중 도움이 필요하면 동창회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사진: 오무연 GP 위원장(뒷줄 왼쪽)과 함께 방문한 모교 학생 6명, 서윤석 신임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서인석 회장(앞줄 오른쪽)



농담골목 심사평

김병석(59)동문의 'history of mancare'는 본인의 창작이 아니니 심사에서 제외 시켜달라 하여 심사에서 뺐고, 이덕송(60)동문의 '외판원과 할머니'와 주광국(68)동문의 '아내의 생일케이크'도 수작이었으나 지난번에 수상을 하였으므로 농담은 아니지만 그 touch가 부드러운, 신용계(68)동문 부인의 만화(1면 게재)가 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야구방망이가 조금만 더 굵었어도 장원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소 (SNUAA-USA Korean Studies Institute) 창립회원 모집 공고

미주동창회가 제23차 평의원회의(2014. 6. 26)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소 (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s)' 라는 이름으로 Think Tank를 건립토록 하고 창립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립멤버는 미국내 동문들 가운데 50명, 한국거주 동문중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들과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며 가시적인 연구결과를 내면서 2019년까지 \$10 million의 예산을 갖춘 Think Tank를 만드는 데 잠정입니다. 오는 5년간 연구지원금으로 \$50,000, 2016~2019년은 각 \$100,000 씩을 책정하고 5년 이내에 가시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연구결과는 \$10 million 모금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소 설립에 대한 것을 서울 총동창회와 모교에도 알렸으며 서울 총창회 회보에도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1952 Gallows Roa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 (703) 462-9063 Fax: (703) 462-9083
Website: www.snuaa.org, E-mail: snuaausa12@gmail.com

지 상 통 화

임 낙 중 (59, 메릴랜드)

아마도 우리 '시계탑'에 제일 오랫동안 많은 기고를 하신, 임낙중 동문을 지난 학술대회기간에 잠깐 만나 볼 기회가 있었다.



1934년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 중 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치고 1967년도에 도미한 후 다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획득하여 2000년 직장암 치료를 받기까지 개업에 정진하였다. 행사 중에는 바쁜탓으로 약속만하고 헤어져서 나중에 전화로 근황을 물어 보았더니 요즘은 거의 매일 골프로 소일하고 은퇴후에 4권의 수필집을 출판했고 불원간 5번째의 책이 나온다고 한다. 2006년에 나온 첫 번째는 별다른 부제가 없으나 두 번째는 '행복', 세 번째는 '인류의 운명', 네 번째는 '변명'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임 동문은 과학과 인문학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문장력 또한 청산유수로 거침이 없다. '인류의 운명'은 문명 비판서이고 '변명'은 자신의 '참회록'과 비슷하다. 많은 교직자들이 'apologia'라는 말로 (기독교)의 변증문을 펼쳐나간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저자는 '변명'이라는 말로 우리 모두의 인권을 옹호해 보려하지 않았나 생각 한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꼳꼳이 걸어나가는 임동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서너 권의 책이 더 출판되기를 기대해 봤다.

임 동문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식, 신앙, 사상 등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계층이 있고 내 글도 그 계층 모두가 동의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진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기에 내 글을 통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낄 것이다." 고 글을 쓴 '변명'을 하고 있다. - 이원택

MARCHING FORWARD

GP scientific symposium and forum



As remarkable and "for the first time" events marking this year's convention, there were a special section in the scientific symposium allocated for GP (Green Project) members and a session termed "the GP forum", which entailed a panel presentation/discussion of topics that were selected for a broad appeal to GP members. The GP section of the scientific symposium featured 16 GP speakers, who covered a wide range of topics, spanning over virtually all clinical disciplines as well as translational and basic science research. The presenters included graduates of three decades ranging from the class 2011 to 1982, and the depth and breadth of presentations were truly remarkable and certainly made the association proud. Our GP presenters proved to be budding leaders in each field and the GP section of the symposium was indeed a celebration of their successes as well as report of exciting progresses in respective fields. The GP forum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a) Clinical practice building, b) Research career development and c) Open discussion on the current state of GP and future development. Each forum was led by a group of presenters and discussants. The following are brief summaries of presentations given under the GP scientific symposium and GP Forum.

- Chang Gyu Hahn (81): Secretary of SNUCMAA of NA and Chair of GP Symposium

Friday June 5

Dr. Junghoon Kim (99) gave a lecture on osteoporosis, a highly prevalent and serious illness in geriatric population. Osteoporosis causes fractures in 40 to 50% of women and more than 20% of men older than age 50; yet almost 50% of patients fail to recover pre-fracture level of functionality. While treatment recommendations are well established, the treatment that is being delive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is still quite variable and often suboptimal. Particularly vulnerable are patients who are debilitated elderly group, non-ambulatory, and nursing home populations. Dr. Kim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aking special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se patient populations.

Dr. Youngtae Jeong (01) summarized his recent work, in which he tested the role of Trp53 and the Keap1-Nrf2 pathway and their interactions in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LSCC). While Trp53 and the Keap1-Nrf2 pathway are mutated in many cases of LSCC, their pathogenic roles in LSCC are poorly understood. In tracheal epithelial cells, Dr. Jeong tested the effects of loss of Trp53, or Trp53 and Keap1 on tumor initiation and growth. Loss of Trp53 indeed produced tumors with metastatic potential manifesting histological and molecular features of human LSCCs. Interestingly, Keap1:Trp53 null tumors exhibited more accelerated tumor growth and were resistant to irradiation. Taken together, Dr. Jeong's study indicates a critical role of Keap1-Nrf2 pathway in LSCC, which deserves a consideration for a potential therapeutic target.

Dr. Kyung-Heup Ahn (96) reported a summary of his recent study, in which he and his colleagues have attempted to model behavioral phenotypes of schizophrenia using iomazenil. This agent induces GABA deficits and can worsen psychosi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s such, this agent can simulate various phenotypes of schizophrenia, which can thus be conducive to creating a pharmacologic model for the illness. Dr. Ahn highlighted that this agent offers an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role of GABA deficits in

schizophrenia as well as possible therapeutic strategies targeting this deficit.

Dr. Kyung Min Song (09) discussed a topic that cuts across all disciplines of clinical medicine, namely the role of quality measures in the value-focused health care system. She pointed out that while the US spends on health care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 quality of care is far from where it should be. With the arrival of new era of the Affordable Care Act, major payers are keenly interested in matching the pay rate with the quality of care delivered. Dr. Song described how quality measures are developed, implemented and used by stake holders and to what extent such measures can impact the health care system as a whole.

Dr. Jae-Jun Yim (94, SNUCM) reported on his recent study, in which he examined possible development of tuberculosis (TB) during the use of corticosteroid inhalants. In a nested case-control study derived from the Korean national claims database, which included 853,439 new adult users of inhaled respiratory medications, Dr. Yim found that the usage of corticosteroid inhalants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ate of TB diagnosis in a dose dependent manner. These finding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usage of corticosteroid inhalants may increase the risk of TB and as such should inform treatment options that would otherwise have included long term administration of high dose corticosteroid treatment.



Saturday June 6

Dr. Eunkyung Park (00)'s presentation was entitled "11C-PBR28 PET imaging in multiple sclerosis (MS)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test-retest reproducibility and focal visualization of active white matter area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 biomarker that accurately measures the degree of neuroinflammation in autoimmune brain diseases such as MS. Peripheral benzodiazepine receptor (PBR) is primarily expressed in activated microglia in the brain and various PET ligands have been developed for *in vivo* imaging of activated microglial cells in a number of neurologic diseases. This study using high resolution 11C-PBR28 ligand showed visualization of white matter areas reflecting demyelination activity in MS cases with good test-retest reproducibility, demonstrating clinical utility of the technique.

Dr. Tae Kon Kim (01) presented his work, which focused on the role of the RAS/MEK/ERK pathway in central memory human T-cells in the context of the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To address this, he tested a MEK inhibitor (selumetinib) *in vitro* in human cells and found that it decreased alloreactivity of naive and central memory T cells, while sparing more differentiated T cells that are needed for pathogen-specific immunity. Dr. Kim then extended his study to *in vivo* conditions, in which selumetinib was found to delay the onset of GVHD-associated mortality in a murine model. It was concluded that targeting memory dependent differences in T-cell signaling could provide selective inhibition of alloreactivity.

Dr. Sekwon Jang (01) gave an overview on the emerging therapies for melanoma. Given that the immune therapy for melanoma has received much attention due to its remarkable results on metastatic tumors, Dr Jang gave a comprehensive lecture on the basic mechanisms and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several recently developed therapies targeting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proteins that normally suppress specific anti-tumor T cell immunity) such as CTLA-4 or PD1, as well as those targeting activating BRAF mutations. An overview of how certain clinical trials are delivered to patients and the process by which cancer patients are managed by a team of professionals at INOVA were also discussed.

Dr. Won Jae Huh (02) presented a pathology study in which his team investigated the immunochemical profiles of a specific variant of colon cancer with poor prognosis, i.e., micropapillary colorectal carcinoma (CRC). They

Welcome

The 32nd Convention was truly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SNUCMAA of NA. Over the past 40 some years, our main mission was to engender and enhance the fellowship of its members. However, this year, we were able to add + alpha, which is to promote and assist in medical research and advancement.

In the old days, Korean medical school graduates came to the United States for 'living'. Nowadays they come here for 'studying', since the standard of living in Korea is comparable to the U.S. Although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has improved dramatically, Korea still needs a constant influx of new ideas and technology from the world in order to be the medical hub of Asia.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U.S. wanted Korean medical school graduates for 'man power', but now America needs 'brain power' instead. Being a S.N.U. graduate, you are the one who can bring a storm to the field of medicine world-wide.

Some say our organization will die out in a few years without transfusion of new blood. Nevertheless, I saw the future today, fresh blood gushing into the withering tree, thanks to President In S. Seo who boldly rejuvenated our organization.

We have come a long way, turbulent long ways to establish this seedling. We simply cannot let SNUCMAA of NA go down! You cannot afford to forget our origin, lose our destiny, break up the ties, or miss the chance.

Come on, you greenhorns! We can grow a big tree - a sturdy, shining, and spectacular one. We can do it, together!
A grey horn

focused on the phenomenon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 employing several epithelial and mesenchymal markers and SMAD4, a protein involved in TGF-beta signaling. They found that the micropapillary carcinoma was associated with loss of epithelial markers, gain of mesenchymal markers and activation of the TGF-beta pathway, suggesting that EMT might underlie the high metastatic rate and poorer prognosis of this CRC compared to the typical variant.

Dr. Janghee Woo (04) presented the results of his recent studies, in which he and his colleagues examined the utility of tyrosine phosphorylation of c-Src as a predictive biomarker for treatment responsiveness to metastatic colon cancers. Specifically, he and his colleagues studied the association of tyrosine phosphorylation of c-Src with treatment responsiveness to Cetuximab, the first human IgG1 monoclonal antibody for EGFR. In 24 cases examined, they found that progression free survival (PFS) months of patients with high levels of pY416 Src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patients with lower levels of pSrc. Interestingly, however, pY416Src was not associated with the PFS in patients with KRAS mutation subgroup.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ctivation of c-Src may confer resistance to anti-EGFR therapy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olon cancers.

Dr. Kyoung Eun Joung (02) presented the results of her recent studies, in which cord blood levels of adipocyte fatty acid binding protein (AFABP) were examined for their association with birth weight and gestational age in newborn infants. She found that extreme birth weights (small or large) were associated with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n later life. In addition, Dr. Joung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rculating AFABP at birth and the levels of AFABP of neonates. She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mall for gestational age and the level of AFABP in umbilical cord bloo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FABP is associated with biological processes critical for fetal growth and weight gain, and with development of metabolic syndrome in later life.

Dr. Taewoong Choi (02) spoke on the role of exosomes in cytotherapy for acute myelogenous leukemia (AML). Exosomes are extracellular membrane vesicles present in biological fluids that carry various cellular materials (nucleic acids, proteins and lipids) that are also vehicles for cell-cell communication. Currently there is much interest in exosomes in cancer research as tumor-derived exosomes are considered key modulators of the tumor microenvironment. Dr Choi detailed on various ongoing studies of leukemia cytotherapy employing natural killer cell lines, of the role of exosomes and of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interference with anti-tumor responses. He also discussed various issues associated with exosomes studies in the field such as the lack of standard isolation protocols and of proper quantification methods.

Dr. Yuhree Kim (11) Dr Kim's study involved a total of 3954 patients who underwent cancer-directed surgery for lung (30.3%) or colorectal (69.7%) cancer from multiple US regions. Approximately 80.0%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and 89.7% of those with colorectal cancer responded that surgery would cure their cancer; even 57.4% and 79.8% of patients with stage IV lung and colorectal cancer, respectively, believed that surgery was likely to be curative. Patients who reported optimal physician communication scores and a shared role in decision-making with their physician had higher odds of perceiving that surgery would be curative. In contrast, patients who reported physician-controlled or family-controlled decision-making were less likely to believe that surgery would provide a cure. Collectively, her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tient-physician engagement, communication, and barriers to discussing goals of care with cancer patients.

Dr. Young su Park (08) presented his on-going Ph.D. thesis project in which he studies South Korean NGO's family projects in Ethiopia. He introduced the history, culture and ethnicity of Ethiopia. Importantly, Ethiopia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sent troops to South Korea during Korean War. His project seeks to examine three layers of inquiry: the interaction of Korean aid workers with Ethiopian bureaucrats, staffs, and residents in the local social world, the subjugation of marginalized groups of people in domestic politics of ethnicity, religion, and gender in Ethiopia, and the idiosyncratic encounters of development through emerging donors like Korea under the global order.

Dr. Taehoon Lee (02) summarized the results of his recent studies, in which h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aminotransferase activity and comorbidities in US veterans using the data collected at the Huntington VA medical center. He reported that 7.1% of patients had abnormal AST and 4.0% of patients had abnormal ALT levels.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and serum aminotransferase levels. Interestingly, 60% of patients with abnormal aminotransferase level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comorbidity. However, elevated aminotransferase level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hepatobiliary diseases, alcohol abuse and drug dependence.

Dr. Young-Jae Nam (94) presented direct cardiomyocyte reprogramming, which has been his main research focu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Direct cardiomyocyte reprogramming is an entirely new approach to generate new cardiomyocyte without transition through stem cell state by converting fibroblasts to cardiomyocytes by transducing the defined combination of cardiogenic transcription factors. He underscored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is approach and described how this new strategy has been developed as a potentially attra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yocardial infarction. He

also discussed the current challenges facing direct reprogramming strategy.

- Reported by CG Hahn, SC Lee, MY Oh and YJ Nam, the GP Committee



GP Forum "Private Practice Building"

6월 6일 1시에 열린 GP forum Private Practice Building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개업과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인보(83), 신원석(88), 유성은(94) 동문께서 연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개업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후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개업시 필요한 자본과 조달 방법에 대하여 신원석 동문의 설명이 있었고, 수년전과 최근의 개업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하여 심인보 동문의 설명과 개업전후에 일반의와 세부 전문의 관계에 대한 유성은 동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동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 Wonsock Shin (88), Panel Leader, Secretary-Elect 2015-2016



GP Forum "Research Career Development"

Many young alums of the GP group are in training and plan to pursue academic research careers. In recent years, this has been one of major motivations that brought many young alums to the United States. One of GP forums this year was therefore devoted to those young alums with their career pursuits in research/academic paths. The NIH Career Development Award (referred to as "K" award) or its equivalents from federal research foundations are grant mechanisms that were designed to support early career researchers to become independent researchers. Given a significant decline of NIH research funding over the past decade, obtaining a K has become a critical step even for the most talented early career researchers. Practical guidance on K award application, however, is few and far between in the field. Therefore, a GP forum was designed to inform our alums of how to construct successful K award applications this year. The forum was entitled as "How to get a K." and was led by Drs. Chang-Gyu Hahn (81) and Young-Jae Nam (94). Dr. Hahn first introduced various K award mechanisms and described distinct properties of each. Dr. Nam then described the review process of K applications and scoring criteria, highlighting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K and other NIH grant mechanisms. GP attendees freely asked the questions and made comments during the forum. The first part of discussion mainly focused on practical issues on each review criteria (i.e. candidate, career development plan, research plan, mentors and collaborators, and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which are often unrecognized by many applicants. The second part addressed how to enhance cohesiveness between essential components of the proposal and to present the career trajectory of the candidate as one that addresses the unmet needs of the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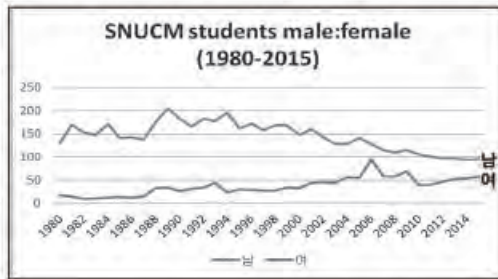
-- Young-Jae Nam (94), Panel Co-Leader & Co-Chair of GP symposium



GP Forum "Past, Present and Future of GP"

The GP forum on the June 7th Sunday was devoted to reflections on the GP movement for the past year and to considerations of the future goals and strategies. The GP chair, Dr Oh (89), led the discussion as Dr Sunhee Lee (81) and Dr Yong Eun (14) were joining in for the presentations of "Women in Medicine" and "GP Communications: the role of Social Media", respectively. There were active, heated discussions among participants (which included several senior members) on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how to make the

association more open to the younger generations and women. In particular,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women in the SNUCM student body (see Figure), among GP members and in the field of medicine was highlighted and its variable implications as well as how best our association should respond to this historic change were also discusse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given information age for the present, how to best use the available modes of communications from Sigetop to Kakao Talk was also discussed.



-- Sunhee Lee (81), GP Committee

General Reflections on the GP activity at the Convention

One of the main goals of this year's annual convention was to provide a platform for GP members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to foster networking amongst ourselves. After hours of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itineraries of all participating members, a number of small group gatherings were organized. GP members began to arrive on Thursday, a day before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Drs. Lee, Hahn and Oh-Park) welcomed Dr. Youngtae Jeong (01) from San Francisco, Dr. Junghoon Kim (99) from Houston, Kyung Min (Minnie) Song (09) from Washington DC, and Dr. JeongYoun Hong (91) from Seattle at the hotel restaurant. Even after numerous prior emails or phone communications, we were still very excited to meet with each other in person and finally to match the faces with their names. In multiple groups, we kept talking deep into the night, sharing stories after stories of our careers and just about everything else in life.



During the scientific session on Friday, we had for the first time a section organized specially for the GP group. The honor given to the GP group was extended to the very next function, as our young GP alums carried the flags to kick off the Friday banquet (Photo: Junghoon Kim (99), Kyung Min Song (09) and Young su Park (08), from left to right).

On Friday night, we had another gathering for a much larger group, a total of 25 people including the young Associate Deans, Drs. Jae-Hyon Bahk (87), Jungshin Park (89) and Yong-Jin Kim (92), and Professor Jae-Jun Yim (94)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ach member was introduced (videotaped), which gave us a glimpse of individuals' lives in the US. We talked about our careers, hobbies, challenges and fun of living in the US. Each of us was busy learning about other alums, graduates from 1981 to 2014, coming from Seoul and the US. It was a rar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various challenges in our profession as well as cross-cultural, cross-generational and cross-geographic perspectives.

The main banquet of the convention was held on a luxury boat, the Cornucopia Majesty, on Saturday night. On the roof deck of the boat, we talked, laughed and drank with the beautiful New York skyline in the backdrop. The GP tables were set at a level above the main, where we had a space of our own. We practiced two songs for our GP group performance out on the deck -해마라기의 '사랑이여' and Beatles' 'Let it be', which was led by Dr. Jasung Kim (85), an incredible singer and guitarist. All of us became one big happy bunch singing together. To our surprise, there was a perfectly-timed firework shooting up against the beautiful Manhattan night sky. Perhaps, the whole NYC was happy for us! At the end of the banquet, we felt as if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For the grand finale of the banquet, the GP was given the honor of performing as a group. We all gathered at the stage for a group farewell singing. "사랑이여" was vibrating in the air and everyone



joined in - Green, Silver, graduates in the US and in Korea (Photo, Courtesy of Dr 나두섭(73)). Even after our performance was over, the last sentence of the lyric was lingering in our ears - 영원히 변치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Certainly, this convention was way more than just another annual function for GP members. It awakened and refreshed our hearts, the memory of which we will carry wherever we are or whatever we do as healers.

-- Mooyeon Oh-Park (89), Chair of GP Committee

GP alumni Feedback on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has received many, many encouraging feedback comments, verbal and electronic. We could not place all of them but chose to share a few examples here.

Dr Oh: "연락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뵈고 많이 배우고 저를 돌아보며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돌아오는 내내 아쉬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유리(11) 드림

Dear GP Committee: It was much appreciated that the committee put so much effort to make this convention successful and fruitful in every aspect. I had a great time with each every alum who I met with. It was a refreshing moment when I looked back what I had done and think what I should do in the future, all from the interactions with junior and senior alums and with my colleagues at different stages of career. It was, most of all, just FUN being there with all. Thank you again for your time and effort. I hope that I can be more involved in the committee work later. - Janghee Woo (04)

서인석 선배님께: "...I'd just like to tell you how much we, all GP attendees, enjoyed the meeting and appreciated what you had planned. It was more than a "turning point" in SNUCMAA. What you made happen is something that no one even tried for more than a couple of decades. It was not until after the convention when I received many grateful feedbacks from young alums that what you have envisioned became clear to me. Personally, the convention made me proud to be a part of this group and I feel very lucky to have you in the U.S. as a member of SNUCMAA. I hope we all are able to continue to realize your vision on SNUCMAA. Thanks again for your strongest support ever and unusual insight that no one else has." 남영재(94) 드림

Dear Committee: "선배님들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더욱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중한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동문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태훈 드림(02)

Dear Committee: "It was great to meet you in person at the convention, and I appreciate all the hard work behind the scene to make this GP meeting a reality. There are a number of fellows/junior faculties in hematology and oncology and I am sure that we will be able to put together an oncology section in coming years." Sekwon Jang (01)

"Dr Oh: 다시 만나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convention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GP committee member분들의 크나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동문들이 동기, 선배, 후배님들을 만나면서 반가워하고 서로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Won Jae Huh (02)

"It was such a pleasure to meet you in person (finally!) this weekend. I cannot tell you how much I appreciate your hard work to make this event happen. I truly enjoyed the time spent with you and GP alums and promise that I will keep this momentum that you started and make GP presence even more substantial next year. Thank you again and hope to see you soon!" Kyung Min Song (09)

Dr Oh: "You provided such a passionate leadership in the 2014 GP committee. I hope that the DC chapter of SNUCMAA will be able to add additional layers of bricks over the base that the NJ/NY chapter has created. I hope the 2014 GP leadership will continue to be involved and guide us to navigate the SNUCMAA maze." Myong Ho Nam (81)



골프대회 보고

골프 outing이 1박2일에 걸쳐서 convention venue에서 한시간여 떨어진 Cold Spring Resort 골프장에서 이루어졌다. 첫날은 오후 2시에 shot gun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0년 동문부터 79년 동문까지 총 28명이 참석했다. 64년 동문이 다섯명이 참석하여 가장 많았고 네분의 여성 골퍼가 있었다. 예년의 골프행사에 비하면 다소 참여율이 떨어졌지만 모처럼의 완벽한 날씨 덕분에 모두 다 즐거운 골프를 할 수 있었다. 과거와 달리 골프의 기량이 많이 줄어서 gross 성적은 심히 불량했다. 경기가 끝난후 클럽하우스에서 맛있는 저녁을 풍족한 맥주에 곁들려 다들 즐겼다. 백승원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시상식을 마치고 간단한 여흥을 끝으로 첫날의 골프시합을 마쳤다.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차로 인근 리조트 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나는 관계로 호텔에서의

뒤풀이 행사는 못하고(실제로 서인석 회장이 이를 위해 와인을 많이 준비했었다) 내일의 골프를 위하여 잠자리로 들어갔다. 다음날은 아침 8시에 또 shot gun 방식으로 outing이 예정되어 클럽하우스에서 이른 아침식사를 하였다. 이날은 몇명의 골퍼들이 줄었는데 아픈 무릎을 가지고 끝까지 어제 18홀을 마친 최준희(64)동문은 이날은 골프는 포기하시고 혼자 빈 카트를 몰고 동기 네 분이 한 조가 된 팀을 따라다니시며 동기들을 응원하셨다. 이날 골프는 오후의 컨벤션 장소에서의 행사관계로 서둘러 마치고 시상식도 없는 친선 게임으로 마쳤다. 어제에 이어서 이날도 골프치기에 최적의 날씨로 모든 골퍼들이 이른 아침의 골프를 즐겼다. 골프장의 컨디션도 좋았고 서비스도 좋았다.

- 오용호(72, Convention Co-chair)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참관기

정 준 기(77, 서울의대 핵의학과)교수

2015년 6월 4일-7일 뉴욕 근교 뉴저지 티넥스에서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월남전 때문에 미국에 의사가 부족하여, ECFMG라는 자격시험을 합격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을 의사로 인정하여 주었다. 삶의 질이 탁월하게 좋은 미국 의사를 동경하던 많은 외국인이 이민 와서 활동하였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의대 졸업생의 절반이 도미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울의대 졸업생이 약 1,200명에 달한다. 이번 동창회에서 약 200여명의 동문과 함께 가족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매년 열리는 동창회는 올해가 32주년으로 뉴욕에서 핵의학을 전공하는 서인석(73년 졸업) 선생이 회장으로 많은 준비를 하였다. 동문들의 호응도 높아 180여명이 회비 이외의 기부금을 쾌척하였다. 모교에서는 학장과 4명의 부학장, 병원장, 동창회장이 참석하였고 나는 마침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 핵의학회와 날짜가 연결되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의사는 바로 동포사회의 주축이 되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사와 가족들은 불우한 재미동포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미국 사회 상위계층과 연결되게 되어주었다. 또한, 고국의 의료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와준 것이다. 선진 의학지식 및 기술을 재미동포를 통해서 쉽게 전수 받을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 CMB(China Medical Board)에서 의학도서관을 건설할 때 조건으로 매칭 펀드를 요구하였다. 그만큼 자금이 없던 권이혁 학장님은 미주동창회에 호소하여 많은

동문이 후원하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메리어트 호텔 내에 있는 학술대회장에서 2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CME(평생의학교육) 평점을 주는 학술대회장에서는 재미동문과 한국에서 온 강사들이 전문 의학 강의를 하였다. 비CME 프로그램에는 역사, 예술, 교양 등을 주제로 하는 문화강좌가 진행되었다. non-CME 프로그램의 강사는 대부분 우리 동문들이었고, 그 분야의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 걸쳐 35개의 학술강좌와 18개의 교양강좌가 여유시간이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두 밤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의대 졸업생의 특징은 모범적이고 학구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국에서 온 우리들이 옛 동문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면 그들 역시 반갑게 환영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같이 듣는 것이었다. 습관적으로 강의를 놓치면 안 되는 모양이고, 강의 스케줄도 타이프 하였다. 어떻게 보면 보다 넓은 시야와 여유를 갖지 못한 전형적인 우리 의료인의 삶의 형태인지도 모르겠다. 교양강좌는 나에게도 아주 흥미로웠다. 우리 민족의 역사, 특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 원류가 불분명한 신라에 대한 비전통적인 역사관이 재미있었다. 또 교양강좌로서 오페라, 와인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동문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이 김전기 교수의 불협화음에 대한 특강이었다. 김 교수는 나와 같은 핵의학을 전공하여 하버드 대학에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계에서 활동하여 전인권과 그룹 들국화의 오랜 친구였다. 또한 클래식 음악에도 고견이 있어 고대음악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나타

Non CME 보고

75년도 졸업 한민우, 김원정 동문들의 어부인들께서 공동으로 준비한 금년도 non CME는 Mrs. Kim의 갑작스런 귀국 등으로 약간의 차질이 있었으나 이흥빈(63)동문이 강의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이건일(68)동문 또한 '와인 이야기'로 시간을 채워주었고 외부에서 초빙한 연대 출신 조만철 선생이 '시와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즉석 대강을 해 주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안신영 화백이 주도한 재미 현역자가 6인방의 그림 전시는 아마추어 화가 김명원(68)동문의, "역시 프로는 달라!" 라고 허를 차게 했으며, 이흥빈 동문이 wine회사 사장답게 'wine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한 강의는 하루종일이라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다. 그야말로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맛도 즐길 수 있다" 였다. 온기철(71)동문은 늙으면서 공부에 취미를 들었는지 '근세 한미간의 관계'나 '자본주의'에서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판단력을 과시했고, 김은한(66)동문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 고대

문화에 대해 일가견을 피력했으며, 시카고의 세종문화센터와 연계된 박종희(75, Lucy) 동문은 우리의 시조문학을 미주류사회에 심도있게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외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한 몸으로 모든 강의를 다 경청할 수 없어서 다른 topic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는 바이다. - 이원택 (71)

작가들과의 만남

시계탑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작가와의 만남은 김병석(59), 서윤석(68), Mrs. 김성환(71)과 이원택(71)동문이 저서를 가지고 나와 자리를 지켰으나 작품세계에 대한 대화는 저조한 편이었다. 다만 가지고 나온 책들이 다 팔려서 책 판매대금 930달러를 동창회 기금으로 회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과연 우리 동문들은 말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한 분들이다.

미주동창회 2015 새주소록 발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동안 동창회 일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10년전 주소록을 보고 전화를 하면 둘에 하나는 wrong number란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 것만 못하다. 모처럼 꽤 쓸만한 Directory가 나왔다. 앞으로 모든 동문들의 life를 easier하게 만들어줄 주소록 출판위원장 문대욱(73) 동문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한다.

나는 불협화음 특히 말러의 교향곡에서 보이는 다양한 불협화음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음악을 들려주면서 해설하였다. 또 하나는 2년 선배인 박종희 여선생의 영어시조 강의였다.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세계 각국의 시를 보여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 교육을 한다. 길이가 짧은 일본 단가(短歌)가 주로 뽑혀 많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하다. 우리나라의 시조는 45음절로 만들기가 쉽고 동양 정서를 표현하기 용이하다. 박 선배는 우리의 찬란한 보물인 이 시조를 미국 내에 보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박 선배는 학교 성적도 수석이었었는데 비학문적인 시조 보급 운동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재미동문의 평균 연령이 72세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대회에서는 80년 졸업 이후의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했다. Green Project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서인석 선생님 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15명의 CME Speaker를 포함 35명이 참가하였다. 따로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진 듯 하였다.

1977년 의대를 졸업한 31회 우리 동기는 160명 중 12명이 미국에 있다. 불행히도 이번 총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선배와 후배 중에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 아산서울병원에서 9년간 핵의학과 과장을 역임하셨던 이희경(61) 선생님 부부와 내과 동원회의 선배이신 석창호(72) 선생님 부부가 참석하셨다. 제자로는 예일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박은경 선생 부부와 어린 딸이 참석하였다.

이희경 선생님은 핵의학을 전공하고 문필력이 있어 미주동창회의 신문인 시계탑의 주필을 오랫동안 역임하였다. 석창호 선생님은 졸업 후 군대를 먼저 마치고 내과 레지던트를 하여 나와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였다. 4년 차 때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내과를 전공하고 뉴욕에서 교포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에서 성공리에 개업하고 있다. 따님이 미국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의 정교수가 되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두 선생님 부부가 모두

나를 위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도 대접받아 아주 고마웠다. 2년 위인 75년 졸업 박종희 선배님, 73년 졸업생인 문대욱 선생님 등 다른 분들도 처음 만났지만 백년지기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만찬을 즐겼다. 첫날 저녁은 '시계탑' 동문신문의 40주년을 축하하는 만찬이 있었고 둘째날 저녁은 300여명이 유람선을 빌려 맨해튼을 돌면서 파티를 즐겼다. 어둠속에서도 휘황찬란한 맨해튼을 보면서 새로 건설한 세계무역센터의 유리 건물을 찾아내고 미국 이민사를 지켜온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만찬은 나이든 선배들의 독무대였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동료들끼리 또 사모님들끼리 그동안 다져온 우정과 단합 때문이었다. 정기적으로 동기생끼리 모임을 가져와 사모님들도 친분이 대단하였다. 젊었을 때는 미모가 대단했을 것 같은 사모님들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았던 의사 선생님들의 춤과 노래 실력은 수준 이상이었다. 어떤 나이 든 동기분들은 단체 합창과 댄스를 준비했는데 노래 제목이 "있을 때 잘해"여서 폭소가 뒤이어졌다. 파티의 마지막은 모든 참석자가 한줄이 되어 서로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서울의대 열차'를 만들어 유람선을 휘젓고 다녔다.

이런 모임을 주관하는 데에는 수많은 업무와 난관이 있었을 것이다. 주최자들은 가족까지 동원하여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였고 참석자들은 협조하고 불편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그동안의 어려운 준비과정을 과시하거나, 미숙한 행사에서 생기는 불만을 호소하지 않았다. 역시 우리 의료인은 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집단인 것이다.

동창회에 참석하고 선배 차에 동승해 볼티모어에 가는 차 속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다음 구절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小人同而不和, 君子和而不同 소인은 서로 같지만 어울리지 못하고,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화합한다."

제32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학술회 보고



강유구 (71, 펜실바니아)

제32차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 학술대회는 뉴욕 근교의 Glenpointe Marriot Hotel에서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에 없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회장단과 학술대회 임원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주요 목적은 새로운 학술 및 임상 정보를 동문들에 알려 동문들의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며 동문들 사이의 친밀한 교류를 통하여 학술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었으며 저희들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2015 학술대회의 주제는 Millennials이었습니다. 그 첫 이유는 1983년에 탄생한 저희 학술회가 32세라는 장년기에 들어섰고 두번째 이유는 Millennials에 속하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5명의 저명한 기성 연사님들을 초빙할 수 있었고 14명의 미국에서 전문분야 연구와 임상에 주력하고 계신 젊은 동문님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Green Project에서 Green Project Forum을 통하여 젊은 동문들의 장래를 토론하고 동창회 장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5 학술대회의 연제는 다양하였으며 신생아의학에서 노인의학까지, 고교학에서 의학행정까지, 의학교육으로부터 예술까지, therapeutic alliance로부터 첨단 임치료를 포함하였습니다.

2015 학술대회에서는 강신호 회장 기념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강신호 회장님은 모교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미주동창회에도 자주 참석하셨으며 서울의대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일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거금을 미주동창회에 기부하셔서 매년 저명한 동문의 특별

강의에 쓰시도록 하셨습니다.

2015 학술대회는 ACCME와 Sidney Kimmel Medical College of Thomas Jefferson University가 후원을 하였으며 참가하신 동문들은 10.25 AMA PRA category 1 credits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학술대회의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는 6월 5일(금) 이른 아침부터 서인석 미주동창회장님과 흥정용 신임 서울의대동창회장님의 따뜻한 환영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대회 학장님 (87, Professor of Prevent Medicine & Dean, SNUCM)은 서울의과대학과 Rutgers University와의 자매결연 관계로 6월 7일에 강의하셨습니다 연제는 서울의과대학의 과거, 현재와 미래이었으며 점열적인 포부를 설명하셔서 동문들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강대회 학장님은 서울의대 동문들이 임상, 연구활동, 대학교육과 의학행정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감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의과대학은 본부병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며 최근에는 Arab Emirates의 Sheik Khalifa Specialty Hospital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세계적인 봉사활동을 강조하여 Laos, Vietnam, Myanmar 등지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의학발전을 돕고 있으며 JW Lee Center for Global Medicine 과 Center for Health of Korean Reunification 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의과대학은 세계 의과대학 서열에서 56번째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의과대학으로 발전시키시겠다는 포부를 보여 주셨습니다.

강학장님은 서울의과대학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셔서 청중의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 (1) 인간의 건강을 도모하고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 (2)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자,
- (3) 의학계의 장래를 이끌수 있는 지도자,
- (4) 도덕적이고 봉사심을 갖춘 전문의 학자.

2015 학술회의 첫 연사는 간병환에 대가이신 **한혜원 교수님** (61, Professor of Hepat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 였습니다.

한교수님은 B형 간염과 B형 간염 vaccine의 연구결과를 설명하신 후 경구 B형 간염 vaccine은 B형 간염 항원을 줄이며 간경화 증세를 호진시키고 B형 간염이 유발하는 간암의 재발을 방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교수님은 B형 간염의 퇴치는 조만간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의대 병원장이신 **오병희 교수님** (77, Professor of Internal Medicine, SNUCM)의 연제는 한국인의 심장부전증이었습니다.

오 원장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심장부전증은 2002년의 0.45%에서 2010년의 0.62%로 증가되었으며, 환자의 병적상태와 사망율을 증가시키고 건강수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심장부전증 등록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년 사망율이 20%에 달하며 심장부전증의 위험인자를 이해하고 치료범위를 수정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조중해 심장외과 교수님(69, Cardiothoracic and Vascular Surgical Associates, Chicago, IL, Medical Director,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SNU Bundang Hospital)은 외과의사와 예술이라는 특이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조교수님은 외과적으로 천재적인 재질을 발휘하면서 음악, 문학, 그리고 사회활동에 기여하신 Christian Theodor Billroth, Sir Frederick Treves, Sir Geoffrey Langdon Keynes, Harvey

Cushing 과 Leo Eloesser의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청중으로부터 대단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영자 교수님 (66, Professor of Pathology, Yale School of Medicine, New Haven, CT)의 연제는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Barrett's esophagus와 Exophageal Cancer 이었습니다. 최교수님은 18-28%의 미국시민이 GERD로 고생을 하며, 이중 8-15%에서 Barrett's esophagus로 진행되며 이중 0.12-0.38%에서 식도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병환 진전이라는 특성때문에 식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biomarker 가 식도암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 발견된 식도암과 특수유전인자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식도암의 치료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의하셨습니다.

서유현 교수 (73, Professor Emeritus of Pharmacology, SNUCM, President of Korean Brain Research Institute)는 Alzheimer's disease와 Parkinson disease의 발생 원인과 치료방법을 발표하셨습니다. 서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CTFs (carboxyl-terminal fragments at APP)가 Alzheimer's disease 유발에 중요한 원인이 되며 hASCs(humanadipose-derived stem cells)를 투여한 쥐실험에서 Alzheimer's disease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더구나 hASCs는 Parkinson's disease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서교수님은 최근에 설립된 Korean Brain Research Institute를 소개하셨는데 이 연구소는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소이며 앞으로 각종 두뇌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Mayo Clinic에서 병리학을 전공하시는 **서은희 교수님** (82, Professor of



개회사를 하는 서인석 회장 / 55년, 57년 동문들 / 졸업 55년 주년을 맞은 60년 졸업 동문들과 박양실 동기(전 보사부장관)의 자제인 박중신 부학장(뒷줄 왼쪽에서 4번째)



강대회 학장, 오병희 병원장, 서유현 뇌연구원장, 흥정용 동창회장, 임재준 부학장, 박중신 부학장, 서인석 회장, 정준기 교수, 박재현 교수



Banquet에서 대합창을 하는 동문 및 가족들 지휘는 성악가(소프라노) 국영순 (이명희 (66) 동문 부인)



59년 졸업 동문들



72년 졸업 동문들

Pathology, Mayo Clinic, Rochester, MN) 은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쓸수있는 최근에 발견된 biomarker에 대해서 강의 하셨습니다. Non small cell lung cancer가 전 폐암의 75%를 차지하며 현재 두 targeted therapy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ALK inhibitor (crizotinib)와 EGFR inhibitor(gefitinib, erlotinib)]. 하지만 암세포들이 항암치료에 저항성을 갖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반응을 증가시키는 면역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폐암치료는 biomaker testing, targeted therapy와 면역치료법에 의하여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최용성 박사님 (61, Distinguished Investigator, Ochsner Clinic Foundation, New Orleans, LA)은 면역학적인 암연구를 하신 세계적인 학자이시며 2013년 합춘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박사님은 암세포의 분열성장 속도는 정상세포의 분열 성장속도와 같으므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항암치료의 합병증인 염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B-lymphocyte는 bacteria를 제거하고 T-lymphocyte는 virus와 암세포를 제거하므로 정상적인 lymphocyte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암치료의 근본이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40년전에 닉슨 대통령이 선언하신 암퇴치가 조만간에 올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강유구 교수 (71, professor of Anesthesi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는 간이식 마취학의 세계적 권위이시며 2014년 합춘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첫 강신호 기념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강교수는 간이식 개발의 어려운 점과 간이식의 공헌을 강의하셨습니다. 1963년에 Dr. Thomas Starzl에 의하여 시작된 간이식은 부족한 외과수술기술, 마취기술, 장기거부반응, 장기보관방법과 염증치료로서 많은 장애를 겪었습니다. 1982년에 Dr. Starzl이 University of Pittsburg에 간이식 센터를 설립하면서 임상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장애가 점차적으로 극복되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간이식이 대부분의 의과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이식은 우주산업과 같이 의학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혈우병과 같은 유전적인 질환들이 간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식을 통하여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많은 교과서들이 개정 출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간이식에 관여하는 전문의들은 간이식은 내과적으로 간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때까지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보며, 간질환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안효섭 교수님 (71, Professor Emeritus of Pediatrics, SNUCM, Exe-cutive Director, Cancer Center, Bundang Hospital, Seoul Korea)은 소아과 암치료를 평생을 바친 저명한 교수로서 Acute Lymphocytic Leukemia이 관하여 강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ALL의 치료율은 80%이상으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발전은 ALL의 특성을 찾는 기본과학 연구와 대규모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안교수는 한국 전역에 걸친 제 1차(2005~2014)와 제 2차(2014~) 임상실험을 주관하시는데, 이 획기적인 치료결과의 발전은 최근에 도입된 Monoclonal Antibody, Small Molecular Inhibitors, 항암제와 면역치료 방법에 근거를 둔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강우 교수님 (74, Professor Emeritus, Sung Kyun 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은 오래동안 경험하시고 연구하신 오십견에 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전에 있었던 외상, 수술 또는 어깨 운동을 하지 않는데서 온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오십견의 첫 단계에서는 밤에 오는 통증이 휴식중에도 오는 통증으로 발전되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통증은 줄어들지만 어깨 운동에 심한 장애를 느끼며, 세번째 단계에서는 통증은 많이 줄어들지만 아직도 어깨 운동장애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진통제나 Steroid를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운동 물리 치료를 통하여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준기 박사님 (77, Professor of Nuclear Medicine, Past Director, Institute of Medical History and Culture, SNUCM)은 핵의학을 전공하시면서 서울의과대학의 역사를 연구하신 다재다능한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제는 연건동 서울의과대학의 역사 이었습니다. 연건동은 15세기의 이석형 정승의 사택으로부터 시작되며 연못에 많은 연꽃을 상징하여 연건동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종시대에는 아름다운 꽃을 기르고(함춘원) 말을 타는 정원(마등산)으로 바뀌며 사도세자를 모시는 경모궁이 지어졌습니다. 1899년에 고종황제는 서울의과대학의 전신인 국립의과대학을 창설하며 지역영씨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 하였습니다. 1908년에 대한병원이 설립되면서 국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Neo-Baroque 양식의 시계탑은 근대화를 욕구하는 고종황제의 뜻을 나타내며 서울의대 동창의 상징이 되었다는 말씀에 모든 동문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병석 교수님 (59, Associate Clinical Professor of Psychiatry, St. George University, Director, OPD of Psychiatry at Coney Island Hospital, NY, NY) 정신과를 전공하시면서 Therapeutic alliance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김교수님은 의사들은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 보다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Holistic approach를 해야 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Therapeutic alliance는 환자와 의사 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이며, 질병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환자가 질병치료를 따르도록 유도하며 법적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임계준 교수 (88, Professor of Internal Medicine, SNUCM)는 2014년 합춘의학상 수상자이며 최근에 완성하신 Inhaled Corticosteroid와 폐결핵 발생의 관계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연구에는 80만 환자 기록이 포함되는데 만성기 관지염이나 전식에 흔히 쓰여지는 inhaled corticosteroid가 폐결핵의 유발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밝혀 inhaled

corticosteroid의 무차별 사용은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울의과대학 도서관 신설모금운동을 소개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굴지의 도서관을 통하여 창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16년 마감되는 모금운동은 목표 금액이 1천만 달러이며 현재 3백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종희 교수님 (75, Professor of Pediatrics, Allergy & Immunology,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IL)은 소아과 allergy를 전공하시며 왜 선진국에 allergy가 많은지를 밝히셨습니다.

Allergy는 특히 선진국에 증가하며 현재 전체 인구의 30~40%가 allergy로 고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억의 인구가 전식으로 고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박교수님은 allergy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설명하시면서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은 세계적인 기후변경,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인간체와 공존하는 미생물 군집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박찬형 교수님 (62, Past Professor of Oncology and Hematology, Texas Tech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 Lubbock, TX)은 평생 암치료 연구에 몰두하셨는데 위암은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인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욱이 대장암과 달리 위시경을 통한 조기진단이 어려워서 사망율은 동양에서의 사망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박교수님은 같은 분야에 계신 한혜원, 한수웅, 그리고 임종식 교수님과 힘을 합쳐 각종 과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 시민과 정치인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32차 학술대회는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경청하신 동문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서인석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Grand Banquet에서 '있을때 잘해'를 열창하는 64년 졸업 동문들



맨하탄을 배경으로한 71년 졸업 동문들



69년 졸업 동문들



73년 졸업 동문들



Grand Banquet에서 교가를 선창하는 박종호(85) 오무연(89) 동문 부부와 박동문의 누님 박종희(75) 동문

약 280명의 동창들과 그들 배우자가 참여한 32차 연례학술대회의 다양하고 challenging한 schedule을 뒤로하고, 22명의 동문들과 그들 배우자 21명(한 동문은 혼자 참여) 버스 투어를 시작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로 출발했다. 컨벤션 동안 수고한 동창회 사무장 제이미 김과 그의 남군 및 여행사 대표 제니 전과 그의 남군 모두 합쳐 47명의 일행이었다.

'Life is a journey, not a guided tour.'라고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guided tour로 인생을 시름없이 즐기고 싶을 때도 있다. 가는 도중 Lake wood Vineyard Winery에서 와인 테스팅으로 목을 축이고 계속 버스 타고 走馬看山(달리는 말 타고 산천구경)이 아닌 走車看山 하면서 북쪽으로 달려갔다.

71년 졸업 온기철 동문이 버스 앞자리에 앉더니 경제학 강의를 disc를 통해 시작했다. 기대도 않은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a good surprise였다. 온기철 동문의 강의가 차차 나를 매료시켰고 흥미있는 강의는 note 하는 버릇이 있어 노트하기 시작. 스코틀랜드 출신 아담 스미스의 國富論(Wealth of Nations)부터 시작한다(1776) 경제, invisible hand가 주도하는 market based capitalism으로 이어지고, 산업혁명, Karl Marx(1813-1883)의 자본론(das kapital), Comm-unism Manifests(공산주의 선언), Fre-iderich Engels (1820-1896)의 사회주의 이론 G.W.F. Hegel(1770-1831) thesis - anti thesis - synthesis로 이어지는 변증법(Dialectic), 1917 Lenin에 의한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1989(약 70년 후 소련의 붕괴), 1929년의 Great Depression(대공황), Big Government & Keynesian Economy(1883-1946) Small Government & Hayek (Reaganomics & Margaret Thatcher), 1979년 oil shock. 20세기의 global eco-nomy 시대 등. 경제는 끝없는 변천을 거듭해왔다. 문득 Aristotle (384-322 BC)가 한 말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도 과두정치(oligarchy)도 독재주의(dictatorship)도 일과성(transient)이지 오래 못간다고 한 것 말이다.

온갖 잘못을 저지르면서 정치생명이 길었던 진보적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8년 대통령 임기를 거의 마치면서 State of Union Speech에서 말한게 기억난다. "The era of big government is over."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귀를 의심했다. 그 말은 잘못 얘기한게 아니었다. He meant it. big government, small government 전부 오래 못가는 transient system,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언젠가는 바뀌는 것(no immutability in the cosmos, 즉 제행무상(諸行無常))

일마 후 버스는 나이아가라 타운(온타리오, 캐나다)에 도착했다. 평소에는 미국에서 온 관광객은 캐나다에서 대 환영이었는데 오늘따라 테러리스트를 농친후라 이민국 오피스는 긴장하고 철저히 여권을 검색하고 있었다. 이제 막 동창회 회장직을 차기 회장에게 넘겨주고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깜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채 캐나다에 입국한 것을 알게된 73년 졸업 서인석 부부는 급히 집으로 연락, 마침 집에 있는 딸에게 부탁해 여권의 photo ID page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Thousand Island로 향했다. 나관중의 명작(삼국지, 수호전)에 익숙한 우리는 중국의 과장법에 익숙한지라 8백 개쯤 되는 섬을 두고(본인의 상상) 천섬이라 과장하지 않았나 생각했었다. "대

문이 중등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근본문제는 결국 Muhammad 제자 지지하는 Sunni파와 모하멧의 사위이자 사촌인 Ali가 암살된 후에 Shiite가 생겨나, 불치의 Sunni파 Shiite파의 불화가 분쟁의 씨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있는 4RS 없었던게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나는 본다. 이 슬람교가 현대화하지 못한 것이다.

4R's: Renaissance, Reformation(종교개혁)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및 (French) Revolution(1789)이 Islam에서 없었다는게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투어 마지막 날 뉴저지로 남하하기 직전에 구경한 32마일이나 되는 긴 Lake George의 steam boat cruise 또한 잊을 수 없는 여정이었다. 근처에 사는 동문 부부의 정성어린

POST CONVENTION TOUR

3박 4일(6/7/15 ~ 6/10/15)

신상균(58, 메릴랜드)



서 이민국에서 이를 인정하여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다. 나이아가라 힐튼 호텔의 north tower에 체크인했다. 아침에 일어나 18층에 있는 호텔 룸의 창문을 통해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 몇 번 이곳에 와 본 적은 있으나 호텔 창문을 통해 직접 보진 처음이다.

Pfizer 제약회사의 강정제 Viagra란 약명이 vigorous Niagara(용솟음치는 나이아가라)에서 유래 되었다는데 호텔 창문을 통해 폭포를 내려다보면서 그 약명 지은 사람의 기지와 제약회사의 상술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아침에 cruise 타고 핑크빛 비웃 입고 우렁찬 소리와 폭포수 가까이 가서 물세레까지 받으며 보는 폭포수는 과연 'Viagra'라 하고 감탄했다.

버스 타고 시간 날 적마다 동문들 자기소개도 했다. 75년 졸업 박인영 동문이 Viagra 기원에 대해 remind 해주기도 했다. 버스는 Floral Clock(꽃시계)에 정차해서 기념 촬영을 하고는 Ice Winery로 갔다. 26개나 되는 와인너리를 근방에 두고 있는 Pilliteri & Estate Ice Winery라는 긴 이름의 독특한 ice wine를 제조 판매하는 곳(나이아가라 폭포의 명성에 못지않은 명소)으로 갔다. 젊은 아가씨의 설명에 의하면 아이스 와인 제조는 frozen wine grape로 만든 wine인데 grape sugar(glucose)를 freeze 해서 물을 더 제거한 농축된 ice grape sugar로 ferment 하기에 포도주 맛이 독특하다고 한다. 75개의 trophy winning winery로 포도주 병도 모양과 크기 등 여러 가지였다. 내 와이프도 아이스 와인 두어 병 사와서 가족들과 마셔보자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 나도 동의했다.

66년 김은한 동문은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의 면류관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영상이 뚜렷하게 잘 나왔다. 저녁은 힐튼 호텔 안에 있는 Brasa Brazilian Niagara Steak House란 긴 이름의 식당에서 여러 종류의 육류 고기를 많이도 먹었다. 와인도 곁들인채 그야말로 식도락(gastronomy)의 한때를 즐겼다.

6월 9일 아침 일찍 체크아웃하고

봉(지구를 덮을만큼 큰 새)을 한손으로 잡아 번개불에 구워 먹고 곤륜산 건너뛰니 태산이 발길에 걸려 왈각달 각하더라." 이만하면 풍이 대풍이다.

'Thousand Island'란 brochure를 읽어보니 사실의 섬 숫자는 무려 1,864개라 하니 숫자에 있어서 서양 사람은 풍을 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Cruise ship(Uncle Sam) 타고 점심하면서 미국-캐나다의 국경을 공유한 넓고 넓은 Bay - River가 합쳐진 물의 극히 일부 22마일가람을 구경하고 왔다. 국경 수역이었으나 다행히 여권은 필요 없었다. 크루즈하는 동안 서인석 회장이 나한테 투어에 관한 기행문 하나 써 보시라고 제안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Wingate 호텔에 체크인 하기 전에 로칼 한국음식점에서 62년 동문 넷이 저녁을, 술은 58년 이만택 동문이 각각 쓰기로 했다. 고마운 일이다.

드디어 6월 10일 수요일, 투어의 마지막 날이 왔다. 66년 졸업 김은환 동문은 약 1400-1500년전 삼국시대에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역사를 present, 일본의 '나라'라는 도시에 있는 법륜사 등이 그 흔적이라 설명했다. 심한 후두염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었다. - 애석한 일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5년(AD 372)에 이차돈을 통해 불교가 전해진게 1643년 전 일이다. 외래종교가 들어와 완전 토착화 하는 데는 약 50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한다. 불교 역사학자들은 Korean and Tibetan Buddhism is the most shamanistic buddhism in the world. 라 했고 한국 절 밖에는 항상 산신령 모시는 사당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잠시 버스 투어하는 동안 기회 나는 데로 동문 22명이 앞에 앉은 순서대로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수분간씩 자기소개를 했다.

58년 졸업 2명, 60년 1명, 62년 4명, 64년 1명, 66년 3명, 68명 1명, 69년 1명, 71년 4명, 72년 1명, 73년 2명, 75년 2명, primary care 5명, 마취 3명 등 모두 개성이 뚜렷한 동문들이었다. 마지막 투어 6월 10일, 버스가 잠시 남하 하는 동안 71년 졸업 온기철 동

문이 중등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근본문제는 결국 Muhammad 제자 지지하는 Sunni파와 모하멧의 사위이자 사촌인 Ali가 암살된 후에 Shiite가 생겨나, 불치의 Sunni파 Shiite파의 불화가 분쟁의 씨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있는 4RS 없었던게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나는 본다. 이 슬람교가 현대화하지 못한 것이다.

버스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교통이 복잡해져 뉴와공항에서 7시 30분 시카고로 출발하는 72년 김현배 동문 부부가 가까스로 비행기 놓치지 않고 타게 되어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Life is a journey, not a guided tour.: 인생 여정이 쉽지 않아 졸썩은 가이드 투어를 하려 했으나 누워 떡 먹기 아님을 이번에 경험했다. 하지만 아무 탈없이 끝났으니 Thank God, 아니던가 끝까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서인석 회장 부부께 감사하며, 이번 여행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신 제이미 김 부부, 제니 전 부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동서양의 시간개념: 서양의 시간흐름은 개념적으로 linear 하다. 시작(태초)이 있고 끝(종말: eschatology)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Creatio ex nihilo) 했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하고 요한복음은 시작한다.

질문은 the beginning of what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을 얘기한다.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 벽시계 할 것 없이 시계바늘이 돌고 도는 현상을 본다. (Floral Clock까지도). Digital clock도 많지만, 지구는 황도를 돌면서 1년을 지나고 자전(axial rotation)하면서 하루를 되풀이 한다. 그래서 동양 시간 관념은 되풀이하는 현상 즉 cyclical하지 서양시간처럼 linear 하지 않다. Eschartology(종말론)은 동양사상에선 보기 힘들다. 성경학자의 일부는 The Big Bang Theory를 받아 들인다는데 그 이유는 The Big Bang에는 시작이 있어서란다. 지금은 동서양이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시대다.

Tomorrow is always one night away, we will never live on tomorrow 라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뉴저지에서 차를 몰고 우리가 사는 메릴랜드 Elliott City까지 무사히 돌아왔다. 뜻있는 여행이었다.



Home Coming & Meet the Local Alums at Niagara Falls on June 8th, 2015, Western NY Chapter: 아랫줄 왼쪽부터 민발식(66), 장한교(66), 전영성(67), 윗줄 왼쪽부터 민인기(73), 서인석(73), 김성환(71)



Meet the Local Alums at Albany on June 9th, 2015, Northern NY Chapter: 황철(왼쪽부터 세번째) 동기의 환영을 받고있는 김은한, 민발식, 최순채 66년 동기들.



Meet the Local Alums at Albany on June 9th, 2015, Northern NY Chapter: 아랫줄 왼쪽 첫번째 Mrs. 이남수, 윗줄 왼쪽부터 네번째 Dr. 이남수(71; Albany에서 소아과 개업)의 환영을 받고 있는 class 71 동기들.

나의 오디오 이야기

이 건 일 (68, 남가주)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따분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나의 스테레오 시스템 장만 역사, 특히 내 동기이자 친구인 Audio Guru 오선생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돌이켜 본다. 오선생은 글재주에 사진 재주에 博學多識 하고 上通天文 下達地理하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클라리넷도 불었고, 그 후 플루트에 관심이 많아 하나 사서 벽에 걸어 놓고 보며 좋아 하다 드디어 배우러 다녔던 모양이었고 현재는 연주 실력이 제법 수준 이상인 모양이다. 여행 갈 때마다 들고 와서 한 곡조씩 뽑아낸다. 내 스테레오 병은 이 양반 때문에 들게 되었다.

어려울때 자기 아버님이 음악을 좋아 하셔서 그 당시로는 꽤 좋은 시스템을 장만 하시고 제일 먼저 아들에게 들려주신 음악이 Carl Orff의 'Carmina Burana'였던 모양 이었다. 나는 그가 왜 이 음악을 그리 좋아 하며 왜 수많은 다른 레코딩들을 가지고 있나 하고 궁금해 한 적이 많았다. 한참 지난 후에 자기 사이트에 올린 글을 읽고 의문이 풀렸다.

그후 그가 안과 레지던트 수련시 안과 과장님이시던 고 윤원식 교수님이 새로 들어온 레지던트들을 보고 '광석 라디오'를 하나씩 만들어 보아라.'고 명령 하셨는데 '안과는 기계 를 많이 다루는 과이니 너희들도 기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아야 된다.'는 취지 였다고 한다. 하여간 이 윤교수님 역시 대단한 음악 애호가에 스테레오 애호가 이셨었다. 역대 서울 대학 병원 교수님들 중 내가 제일 존경 하는 분 이었다. 인품이 정말로 훌륭한 학자이며 신사이셨고 내가 미국 을 생각 안했으면 나도 안과 수련 받고 싶게 만드신 분이였다. 순전히 그분의 인품에 반해서 그리 생각 했던 것이었다.

그후 우리 오박사는 스테레오에 미치게 되었는데 나보다 먼저 나가 개업을 하더니 돈 좀 벌자 그 당시로는 상당한 고가의 시스템인 Kenwood Amp에 당대의 名器로 알려진 AR 3a bookshelf speaker를 불러 나를 데려다가 試聽을 시켰다. 군대 있을 때 배급표 주고 구한 별표 전축 하나 간신히 장만하여 억지로 들고 있던 사람의 귀에는, 이젠 뭐 비교도 되지 않았다. 하여 실로 長征의 고난의 스테레오 장만 행군이 시작 되었다.

간신히 돈이 좀 모이자 그를 불렀다. 나 이제 일을 좀 저질러 보고 싶는데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나? 예산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 안 돼, 00000원 정도야. 그래, 그런 세운상가에 같이 가 보자. 그래서 그의 단골 가게로 가서 주인에게 소개 시켜 주었다. Amp는 중고 일제 Sansui에 Sansui FM Tuner로 하고 여기에 미제 중고 (중고 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위 Open에 원래 자기 포장박스에 들어 있어 야 제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No Open이면 신품을 의미 한다.) Venturi 스피커로 하기로 결정 하였다. 별표 전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환훈한 소리가 났다.

이 시스템을 좀 즐기다가 이 병이 들면 으레 일어나는 후유증 즉 끝이 없는 upgrade를 시작 하게 된다. 결국 미국 오기 직전에는 최고급 Sansui Receiver+FM Tuner+Technics Direct Turntable+Shure Cartridge에다가 오선생의 권유로 수입한 영국제 Tannoy speaker unit에 그가 잘 아는 피아노 장인에게 부탁하여 스피커 박스 (이렇게 부르면 audiophile들에게 혼난다. Enclosure라고 해야 한다)를 피아노 만드는 나무로 짜서 만들었는데 여태 까지도 생각이 나고 미련이 남은 名器였다.

Tannoy speaker는 Coaxial type 이라고 하여 고음 유닛 (tweeter unit)이 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중음, 그리고 저음 영역 유닛이 맨 가장 자리를 차지 하는 하나의 스피커 모양을 하고 있다. 스피커는 일종의 악기라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이 배어 있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소위 명품 스피커는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품들이다. 그 흥내 잘 내고 다른 전자기기 다 잘 만드는 일본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스피커를 못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그 후 미국 에서 레지던트, 개업 초기를 거치며 처음 10여 년간은 싸구려 Fischer Receiver+JVC Turntable+JVC Speaker로 버텼다. 그후 몇 번 Upgrade 거듭하여 Luxman Amp+AR Floor Standing Speaker+JVC Turntable로 참고 지냈다.

아들 둘이 다 대학을 졸업 하던 해, 그러니까 한 20여년 전, 학비 걱정이 없어 졌으니까 드디어 좋은 스테레오 시스템을 갖추기로 결심 하였다. 우선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했다. 나이가 들면 고음 청취력이 우선 떨어지니까 비싼 기계 사놓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다행히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고 드디어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을 하였다. 동네 High End Stereo Shop (Audible Elegance라는 이름)에 풀방구리에 쥐드나들듯 거의 매일 출근 하다시피 하며 가서 보고 또 듣고 심사숙고, 삼고초려, 무한한 고민 끝에 거금을 주고 Mark Levinson 38S Preamp를 사들였다. 이어 한 4-5년에 걸쳐 생명보험을 취소하여 돈을 환불 받는 등등의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며 거대한 자본 (!)을 투입한 결과 M-L 335 Dual Monoaural 200w/ch Poweramp+M-L No. 36 DAC+No. 31 CD Transport Linn Sondek LP-12 Turntable+Linn Lingo Power Supply+Graham 1.5 Ceramic Tone Arm+Benz Ruby 2 Cartridge+Naim Step Up Preamp for cartridge Proceed AVR Preamp+Arcam DV 88 DVD/CD Player for surround sound Pioneer 50" Plasma HDTV Main Speaker, Thiel CS 7.2+Thiel SCC 3 Center Speaker, Martin Logan Subwoofer+ B & W CM 2 Spkrs. for Surround Sound Rotel 100 w/ch monoblocks x 3 for surround sound 등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중 CD Transport M-L No. 31 의 CD Tray가 자주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많은 비용을 들여 두어 번 수리 하여 쓰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Naim CD 5X Manual CD Tray로 바꾸었다.

이상은 Main Stereo System 이었고 Master Bedroom 에 역시 50" Pioneer HDTV에 ARCAM AVR 300 amp+B &

W FPM 2 Speaker System (5 Spkrs.)+ Martin Logan 'Dynamo' subwoofer가 있었고 지하실에 Sharp 65" DLP HD TV (rear projection)+Rotel RSD X-62 amp+B & W DM 303 main speaker+B & W LCR 3 center speaker+B & W ASW subwoofer+ceiling mounted B&W surround sound speakers가 있었다. 나의 스테레오 器機는 전시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했다. Mark Levinson은 비가번쩍 하지 않은 양전 하면서도 기품있는 모습이고, Naim이나 Arcam은 영국제 특유의 양전하고 조용하며, 티내지 않는 디자인 이었으니까 모양으로 따지자면, Bang & Olufsen이나 Macintosh 같은 것들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잘 생겼다.

나는 아직도 많은 양의 LP records를 소장하고 있다. 어느 양반이 LP를 잔뜩 수집하다가 죽자 이에 신물이 난 미망인이 한꺼번에 한 2000장 팔려고 내놓은 것을 샀고 그 후 특 날 때 마다 집 근처 한 책방에 가서 \$1-2 주고 사 모은 것이 1000여장 넘었다. CD, DVD, mp3 등의 디지털 음은 오래 들으면 귀가 따갑게 느껴지고 너무 차게 또 금속성으로 들린다. 역시 vinyl LP로 들어야 제 맛이 난다. 여기에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진공관으로 된 앰프를 통하여 들으면 더 좋겠지. 고가의 turntable로 소리를 들을 때 cartridge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리 재생에 차이가 많이 난다. 나는 처음에는 스위스제 Benz Glider를 쓰다가 Silver를 거쳐 Ruby 2로 왔는데, Stylus Diamond Tip 바꿀 때가 되어 가는데 값이 비싸 좀 망설이다가 결국 못하고 말았다. 작년 여름 이곳 남가주로 이사 오기로 결정 하게 되자 이 오디오 기기들을 어떻게 처리 할까가 제일 큰 문제로 떠올랐다.

Pioneer big screen TV 들은 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 집 앞의 소나무에 바람이 치는 바람에 고장이 나버려 작동을 하지 않아, 버려도 되지만 나머지 기기들은 어찌 처리 할 것인가. 남가주에 새로 이사할 집은 작은 콘도라 이 거대한(!) 오디오 시스템을 들여놓을 장소가 없을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팔아 버리기로 하였다. 오디오 기기도 살 때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지만 마치 새 차를 사고 돌아서면 값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이 팔려면 값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내 것같이 근 15년 이상을 사용한 구식, 아니 ancient system은 값을 제대로 받을 리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정리 하는 회사에 위탁 판매를 시켰더니 내가 쓴 돈의 1/10도 건지지 못 하였다. LP는 1/3만 가지고 이사 왔다.

이사 후에 가지고 온 receiver를 사용하려 했더니 이 역시 벼락 맞고 고장이 난 모양이었고 같이 가지고 온 subwoofer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지를 않는다. 다행히 B & W FPM 2 Speaker System (5 Speakers)는 소리가 나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 할 수 없이 아마존에서 싸구려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Cambridge receiver를 사고 싸구려 subwoofer도 구하고 턴테이블은 가격 성능 대비 제일 나아 보이는 Pro-Ject를 구했다. 비엔나에 본사가 있고 제품은 구 동구권 국가에서 만드는 모양이라 소리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집 크기가 작으니 이정도 시스템으로도 소리는 그럭저럭 들을 만 하였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청각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값비싼 시스템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어 졌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법이다. 한때 이 병에 걸려 많은 돈을 소비한 것은 그리 후회 되지 않는다.

한번 해보았으니 그것은 못해보았구나 하는 후회는 없게 만드니까 그만큼 값어치는 있었다고 생각 한다.

호름

신영철(59, 메릴랜드)

피었다 지는
꽃잎은
냇물 따라 흐르고

푸른 하늘의
원구름
바람 따라 흐르고

얽히고 설킨
인간사
인연 따라 흐르고

늘어만 가는
이 몸은
세월 따라 흐르고

맹꽁이의 행복

이영웅(62, 오하이오)

아- 벌써 졸업 53주년! 내 나이도 그럭저럭 77세.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우리 동기 중에 이 나이를 느끼며 사는 친구들이 과연 몇일까? 아마도 모두가 50대인 양 착각 속에서 살아 가리라. 나 역시 그 착각 속에서, 아직도 한창인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울의대 입학 후에 나는,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앞만 보고 뛰어왔다. 공부하라, 과외선생하라,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던 시간들... 졸업하고, 군복무하고 바로 미국 와서, 또 정신없이 바빴던 Intern, Resident 생활, 결혼과 더불어 딸 넷을 아들 부럽지 않게 키우느라 온갖 activity 시켜가며 나를 잊었던 시간들... 내가 한 살 반에 과부가 되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 오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엔 또 아내를 잃고... 내 나이 46세에 수많은 일들이 왔다가 지나갔다. 정말 앞만 보고 뛰어온 세월들이다.

이제 내 나이 77세! 그런데 아직도 나는 앞만 보고 뛰고 있다. 나는 내가 50대인지 70대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두 번째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낳았다. 모두 여섯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 아이들은 나의 열성을 알았는지 모두 좋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셋은 벌써 의직전 전문의가 되었다. 아직도 공부를 계속하는 아이들 덕택에 나는 여지껏 살아왔던대로 앞만 보고 뛰어와야 한다. 취미도 별로 없는 나는 자식들과 마누라만 보고 사는 맹꽁이다. 자식들과 마누라가 없으면 사는 목적을 모르는 나는 그야말로 맹꽁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정신과의 모든 5 specialty board를 획득한 나는 맹꽁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또한 나의 서울의대 자부심인 것이다.

지난날의 아픔들이 이젠 모두 아물고 좋은 열매를 맺어 피고 있다. 오늘에 내일을 생각하며, 지나간 쓰라린 아픔을 되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직 은퇴라는 단어를 모른다. "나 죽을 때까지 일 해!" 하는 무서운 마누라의 공갈 협박마저도 나를 즐겁게 한다.

졸업 53주년에 친구도 옛 교정도 모두 가슴이 아리도록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자식들과, 무서운 마누라가 더 내 마음을 차지한다. 이런 나는 맹꽁이임에 틀림없다. 그래 나는 서울의대 맹꽁이! 이는 나의 행복한 외침이다.



정통 냉면

김명원(68, 남가주)

연례 학회에 참석했다가 버지니아의 동기들과 우래옥에서 만났다.

이야기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맛은 생각지도 않고 먹고 있었는데 여성 팀에서 냉면 맛이 짭뽕이라는 평이 나왔다. 그리고 보니 냉면 육수 맛이 형편 없다.

점심 메뉴에 냉면-갈비 콤보가 없다는 것부터가 나에겐 감점(減點) 요인이다.

점심 냉면을 저녁이나 똑같이 16불 99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긴 했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미합중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우래옥으로서 그 정도는 요구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 해 줬다.

허나 항상 정통 냉면의 원조로 내 기억 속에 우뚝 서 있는 우래옥의 냉면 맛이 그렇게 황당하다는 건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었다.

내가 난생 처음 냉면을 먹어 본 것은 아마 열 살이나 됐을까 할 때 그 당시 을지로 어딘가에 있었던 우래옥에서였다.

나는 어디서나 냉면을 먹으면 항상 그때 먹었던 맛을 기준으로 잡고 점수를 매긴다.

오늘 냉면은 40점이다.

아버님과 함께 그 식당에 들어섰을 때 '우래옥(又來屋)'이란 이름이 특이하게 느껴지던 것이 기억난다.

나의 어린 생각엔 식당 이름은 주로 지명을 따서 붙이거나(명동 칼국수...) 복을 비는 의미의 문자들로(만복 식당...)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께 물어 본즉 "또 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셨을 때 웬지 제 잊속만 차리려고 하는 것 같아 열치 없어 보였고 어감도 밝지가 않았던 것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때 먹었던 냉면 맛의 감동은 반세기도 훨씬 지난 긴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생생하게 나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고종 황제가 냉면 마니아였다는데 나도 냉면을 꽤나 좋아한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식을 하면 한식인 경우에는 냉면 밖에는 다른 음식은 시키지 않았었다.

다른 음식은 집에서 해 먹을 수가 있었지만 냉면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살던 버팔로(뉴욕주)에는 한국 식당이 없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 만큼인 토론토(캐나다)까지 냉면을 먹으려고 차를 달려서 왔다 갔다 했었다.

기저귀 보따리를 싸 들고 어린것들까지 챙겨서 이민국 검사를 거쳐 국경을 넘어서도 한참 더 달려 냉면집까지 가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세숫대야같이 큼직한 대접에 얼음이 뚱뚱 뜬 시원한 육수, 다소곳이 파리를 물고 앉은 냉면 사리, 그 위에 얹은 고명과 반죽 삶은 계란의 환영을 신기루처럼 쫓아 달리다 보면 그쯤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다.

그때는 요리를 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먹고 싶은 건 왜 그리도 많았었는지.

아내는 며느리 수업을 할 겨를도 없이 미국에 와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음식을 만들자니 자연히 음식 맛의 평가와 조언은 내 몫이었다.

옛날 아내의 정성이 담백 담백 음식의 당락(堂落)을 절정하는 관정관이 돼야 한다는 건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무튼 아내가 만든 음식에 점수를 매기곤 했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던 아내는 한번

내린 나의 관정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없었다.

개성 토박이인 나의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미루어서 내가 절대미각

의 유전자 쯤이라도 물려 받았을 줄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요리책에도 없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 머리를 짜내어 야박스러운 체점에도 기죽지 않고 끈질기게 냉면 육수며 짬뽕 국물을 만들어 내던 젊은 시절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자니 가슴이 뭉클하다.

냉면 육수는 그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70점까지는 올릴 수가 있었다. (냉면 사리는 국수 틀로 뽑기 전엔 100점을 맞을 수 없으니 여기서 육수에 관해서만 이야기 한다.)

최고기를 최고기만 끓여서는 냉면의 제대로 된 육수 맛이 나질 않았다.

양지머리나 사태 고기를 생강과 파, 마늘, 등의 양념과 함께 끓이는데 여러번에 걸쳐 매번 다른 비율로 해보고 또 어떤 때는 무우 배추도 넣고 끓여 보아도 우래옥의 육수 맛이 나지를 않았다.

어느날 나이아가라의 스테이크집에 가서 수프로 Consomme (맑은 쇠고기 국물 수프)를 시켰는데 놀랍게도 그 맛이 우래옥 육수 맛과 똑 같았다.

어찌 이럴 수가!

지구의 반대 쪽에서 낫도 모르는 동양과 서양의 두 숙수가 이렇게 똑같은 맛을 만들어 내다니.

이것이야 말로 "만법귀일(萬法歸一), 모든 진리는 하나로 모인다"는 진리 중의 진리가 아닌가.

동양과 서양의 두 요리의 달인이 시공(時空)의 장벽을 뛰어 넘어 육수의 절대적 진리를 하나로 보여준 것이었다.

어쨌든 시장에 가서 각 설탕 처럼 Cube로 된 Consomme를 사다가 육수를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과는 영 비슷하지 않았다.

아메리카의 유명 식당의 Chef가 인스턴트를 썼을 리가 없고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고기 국물을 끓여 낸 것이 틀림 없는데 그 비방을 무슨 수로 알아낸단 말인가.

"꿩고기를 얹은 냉면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냉면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우래옥에서 노상 꿩고기로 육수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부인이 평안도 태생인 친구네 집에 가서 먹은 꿩고기 냉면은 그 나름으로 고 학점을 받을만한 독특한 맛이 있었으나 내가 찾는 육수의 맛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동네에 생긴 한국 음식점 주인의 귀뜸으로 사이다를 타 보았다.

그 집 냉면은 7-80 점 정도는 되었었는데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방장이 사이다를 타는 걸 자주 보았다며 천기누설이나 하는 양 낮은 목소리로 알려 주었던 것이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감히 주방장에게 레스토랑을 공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이다도 세븐 업이나 진저에일로는 안되고 꼭 칠성 사이다를 써야 된다고 당부하듯 일러 주어서 얼마 후 토론토에 가는 길에 칠성 사이다를 구해와서 해 보았는데 그래도 5-60 점 정도 밖에는 안 나왔다.

사실상 사이다를 써서는 비슷한 맛이 나왔다 해도 나의 관점 기준으로는 실격이었을 까다. 순 오가닉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지 그런 가공식품을 써서는 안되는 거였다.

"그간 냉면 국물을 계지고 꿩 그리 고민하네? 동치미 국물을 섞어 보라네." 어느 이북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가 통명스럽게 던진 말이었다. 와 이 무슨 하늘이 찍 갈라지는 소리!

그 쉬운 걸 모르고 이 때까지 애매한 아내를 들들 볶으며 영 한데로만 육수의 비방을 찾으려 헤메었던 말인가?

동치미 국물을 육수와 섞어 써 보았더니 70점이 나왔다.

'냉면 열전'이란 책 소개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냉면은 여름 냉면과 겨울 냉면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 오기 얼마 전에 을지로 입구에 있는 '남포 면옥'에서 먹어 본 냉면은 우래옥 냉면과 전혀 맛이 달랐지만 그 또한 담백하고 새로운 냉면 맛이었다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동치미 독이 담긴 낱짜별로 땅에 묻혀 있었다.

그러니까 동치미 국물을 쓴 남포면옥의 냉면은 겨울 냉면이었다.

70점 밖에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중 최고 점수를 받은 냉면은 겨울 냉면이었던 것이다.

결국은 순전히 육수로만 만드는 여름 냉면 육수의 비결은 아직 찾지 못한 셈이었다.

내가 찾고있는 냉면 육수의 맛은 어렸을 때 우래옥에서 내 미각세포의 동정(童貞)을 바쳤던 그 맛이다.

그때 우래옥 냉면과 나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이자 미지(未知)의 맛의 세계로의 성년식이었다.

그 맛은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희안한 맛이였다.

그 멍멍하고 무미(無味)한 것 같으면서도 달콤하고 구수하고 상큼하게 스치던 비릿한 그 맛!

그때 그 우래옥 냉면 맛이 뇌리에 각인 된 나는 그 맛이 아닌 냉면은 냉면으로 치지를 않는다.

냉면 잘하는 집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가 실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냉면을 좋아한다고 하면 속으로 "네가 냉면이 뭔지를 알아?" 하고 냉소한다

냉면 맛의 백미는 바로 그 "상큼하게 스치는 비릿" 한 맛에 있다.

'비리다'고 하면 생선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비리다는 표현이 정확치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날콩이나 동물의 피에서도 비릿한 맛이나 냄새가 나니까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

비린 것이라면 질색을 하는 내가 그 비릿끼리한 맛에 반했다는 것만 봐도 그 맛은 어떻게 형용할 수없는,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장 차이로 엇갈리는 그러한 아주 델리키트한 뉴앙스인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그 맛을 꼭 집어내어 묘사할 수있는 어휘를 생각해 낼 수가 없던 차에 한국 인터넷에 들어가 알아 보았더니 그 맛을 '육향'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었다. '육향'이 무슨 뜻이냐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카톡을 쳤더니 '살은 고기에서 나는 향'이라고 대뜸 답이 돌아왔다.

허-참, 결국 그 우래옥 육수 특유의 감칠 맛을 앞뒤로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지게 표현할 수있는 어휘를 찾아보려는 내 의도는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칼리 마그놀리아 (백합 목련)

나두섭(73, 남가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리따운 나무에
가느다란 줄기 끝 꽃받침에서
백합모양의 진분홍색 꽃잎들이 피어 오른다.
연분홍색 꽃잎안감을 내보이며 꽃잎이 떨어지면
감춰왔던 수많은 호위병같은 수술을 거느리고
신비로운 암술이 마침내 여왕의 자태를 드러낸다.
일 눈을 열고 나오는 초록색의 나무잎들은
진분홍색의 꽃잎들과 함께 어울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래옥의 육수 맛은 그냥 '살은 고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 아닌가.

그 맛은 평소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쇠고기의 통상적인 맛에 가려져 빛을 못 보던, 미미하지만 잠재력이있는 어떤 향이 메밀의 향이나 육수 레서피의 다른 성분과 어우러짐으로서 상호 상승 효과로 드디어 자태를 들어 낸 것이요 대장금에 버금가는 어느 수라간 상공의 손 속으로 그때까지는 세상에 없던 신비로운 맛이 창조된 것이 분명한데 내가 그 점을 남들한테 아무리 설명해 해도 대개는 멀뚱하니 그게 무슨 통탄지 같은 소리로 하는 표정이라도 후시나 내가 정통이랍시고 알고있는 냉면 맛이 변태가 아닐까 쾅기기도 한다.

알 게 뭐가.
하필 운명의 그날 우래옥에서 유별나게 독한 MSG를 썼던가 아니면 육수가 맛이 간 것이었던 것을 모르고 흠뻑 반했던 거라면 (육수를 식히면서 하루 쯤 숙성시킨다는 설이 있으니 맛이 간 육수와 상통하는 바가 없지도 않다.)

나의 입맛은 봄이 김선달이 팔아 먹은 선 팔죽에 반해 버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풀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성미가 불같으시면 아버님께 서도 그날 아무 불평없이 맛있게 드셨고 지금 내가 살고있는 남가주에도 한결 같이 그와 같은 맛을 내는 냉면집이 있으며 또 재작년에 을지로 본점 우래옥에 가서 먹었을 때도 여전한 옛날의 그 맛을 맛볼 수가 있었으니 나의 입맛이 오도(誤道)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냉면이 뭐 별 거라고 그렇게 까지 따지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양 사람들은 와인을 마실 때 그 큰 매부리 코를 잔에다 쳐박고 툭툭 거리질 않나 술로 양치질을 해대며 찻집거리고 온갖 주점을 떨지를 않나 꿀떡 삼키고 나서는 이렇듯 저렇듯 백 가지도 넘는 미사여구로 요란을 떠는 마담에 우리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창조해낸 자랑스러운 유산의 그 신비하고 아릿한 맛의 뉴앙스를 깊이 음미하며 먹어 보잔다고 해서 입이 너무 까다롭다고 손사래 쳐버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한국 음식점이 지천으로 깔린 <다음면에 계속>

紙上法醫

누가 그녀의 아이를

노 용 면(55, 대뉴욕)



이 사건은 텍사스 주에서 발생했다. 안나 라드리게스(Anna Rodriguez)는 응급구조소에 급히 전화를 걸어, 두 달 반 되는 자기 아들...

가 죽기 전날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었는데, 그가 아이를 해친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 남자는 아이가 죽기 14시간 전에 그녀 집에서 떠났는데, 그때부터 아이에게 열이 나고 보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전면에서 계속) 남가주에 와 살면서 난무하는 엉터리, 날라리, 족보도 없는 냉면들에 치이고 부대끼다 보니 이제...

하다 못해 인스탄트 냉면을 먹고 나서도 "맛 괜찮네" 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습비성시(習非成是), '아닌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옳은 것이 된다'는 옛말이 꼭 맞는 것 같다.

이제는 근처에도 잘 하는 냉면집이 두어 군데 있어서 구태여 집에서 해 먹을 필요도 없으니 레시피를 알아 내려는 집착도 사들해졌다.

최근 인터넷에 오른 냉면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니 요즘 젊은 세대는 "그 냉면한 것을 무슨 맛으로 먹느냐"는 사람도 많고 우래옥 냉면은 너무 고기 비린내가 나서 싫다는 사람도 있다.

-오호 애재(哀哉)라, 그 고매한 향미(香味)의 깊은 뜻을 알아 되지 못하고 '고기 비린내'로 일갈(一喝) 때도(罵倒)해 버리다니!

하다못해 다시다나 라면 스프에 말은 냉면을 먹고도 맛있다는 사람도

있으니 나도 이제는 "제 입에 맞으면 그만이지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뭐 있나" 하고 서너 발 물러선 상태다.

결국 내가 아는 냉면 맛만 정통으로 우기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만이 정통이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딱딱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의 해묵은 냉면의 Holy Grail(聖杯) 추적은 허무하게 끝났다.

어느 네티즌의 댓글이 나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는다.

<평양냉면의 맛은 이래야한다는 동무슨 냉면이 정통이라는 동 핏대를 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월남하신 아버지 왈 "집집마다 국밥 맛이 다 다른 거지 그런데 어딴, 미친놈들", "냉면은 겨울음식 좋아하네. 옛날엔 여름에 얼음이 귀하니까 겨울에 먹었던 거지, 폴 빈 놈들.">

활말이 없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겨우 목숨을 건져 종교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하고 중얼 거렸다듯이 나도 맛있게 먹는 것 같지만 속으론 "육수 40점." 하며 점수 매기는 버릇은 조금도 버릴 마음이 없다.

특하였고, 골절과 경뇌막하 출혈이 생긴 시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군데서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 검사도 했다. 그런데 이들 기록에서 나의 주목을 특히 끈 것은 상처의 주위조직에 염증소견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가기 직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를 볼 더 갖고 있는 여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이와 가벼운 감기에 걸린 아이를 구별 못했을 리가 없었다. 그것도 머리에 아주 심한 상처를 받은 아이를 하루 종일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도울 수 없다고 알려준 후, 산모가 때로는 아

기를 출산한 후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출산후 우울증 또는 출산후 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은 아이를 낳고 90일 이내에 생길 수 있는데, 흔히 보는 원인은 그 아기 때문에 자기와 아이 아버지 사이가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후 변호사가 정신과 의사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Reference: Yong-Myun Rho: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22:416, 2001.

내 나이가 어때서

이덕송 (60, 남가주)



2015년 2월 25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애창곡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박상철의 '무조건' 그리고 3위는 노사연의 '만남'이 선정되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아~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이 노래는 2012년 상반기에 발표된 것으로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 닿고 리듬이 경쾌하면서 감칠맛이 더해지고 보니 한번 부르면 계속 부르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다. 이 노래의 작사가인 박무비씨가 어느 날 등산을 하다 앞에 가는 부녀자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하는 말을 듣고 노랫말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 노래가 크게 히트를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40대 이후의 연령층이 30대 이하보다 비율이 커지면서 중 장년과 노년층들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나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나는 전국 노래자랑을 매주 download 해서 보고 있다. 보통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매주 일요일 낮 TV를 통해 방영되는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전국노래자랑 예심에서 제일 많이 불린 노래가 바로 '내 나이가 어때서'다. 전국 노래자랑은 1980년에 첫 문을 열었으니 장장 35년에 이르는 최장 오락프로그램이다. 3세 꼬마로부터 103세 최고령자에 이르기까지 1세대가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한편의 놀

이마당이다. MC는 올해 89세인 고령인데도 모든 여인으로 부터 '오빠'로 불리는 일요일의 남자 송해다.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뛰어난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입담으로 모든 시청자들에게 최상의 웃음을 안겨다 주는 천재 MC다.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 한지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감기 한번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지난해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마침 초창가수로 등단한 오승근씨가 자신의 히트곡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른 다음 송해가 배턴을 이어 받아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구수한 저음의 목소리와 가락의 꺾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수로서의 송해가 풍겨주는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었다. 2013년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장연우(여자) 5세 어린이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내 나이가 어때서'였는데 사랑살랑 온몸을 흔들며 가면서 음정 박자가 완벽한 가운데 노래를 마치자 귀신에 홀린 듯 어린 꼬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MC 송해가 그 자리에 벌떡 누어버리는 이벤트를 연출함으로 장내가 온통 웃음바다로 돌변한 적이 있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보기 힘든 재치 있고 감렬한 에너지가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야말로 송해만의 '내 나이가 어때서'이고 89세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면이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대박을 터트리자 하춘화의 '나이야 가라' 그리고 이자연의 '100세 시대'란 음반이 나왔지만, 아직 '내 나이가 어때서'의 열광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설날을 맞이해서 교회장년사역부 주관으로 건강세미나(1부)에 이어 장기자랑 및 웃놀이(2부)가 있었는데 나는 장기자랑에 출전하여 신약성경 중에서 로마서 12장(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공동체)과 고린도전서 13장(사랑의 특성)을 완벽하게 암송함으로써 나 자신의 암기력을 테스트해 본 적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은 내 손등을 살며시 잡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긴 성경구절을 어떻게 전부 외었어요?" 나는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아내의 물음에 노랫가락으로 답을 대신했다.

"아~ 아~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암송하기 딱 좋은 나인데 ♪♪."

책자 배포

2015 학술대회 행사중 (1)시계탑 문집 5호 (2) 2015 Directory (3) KAMA에서 나온 'Centennial History' (4) 6명의 화가들의 화집 초록 등이 배포되었다. 필요하신 동문들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재고가 있는 대로 우송해 줄 것이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조사, 기행문, 서평, 그림, 사진, 서예,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졸업년도, 거주지, 간단한 작가 소개 및 본인 사진과 글에 관계되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아래하 한글 바탕체 10호 행간 160% 또는 Word를 사용한 Text로 e-Mail로 보내주시고 모든 산문은 A-4 용지 2매 이내, 논문이나 기행문은 4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SNUCMAA of NA (Sigetop)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Fax: (516) 365-5501 e-Mail: snucmaa@yahoo.com

졸업45주년 기념 동기 여행

이석규, 유철희(70)

의대 졸업 45년이 지난 2015년 늦봄, 7순의 부부들이 알래스카 선박여행을 나섰다. 고급 선박 Silver Shadow는 Vancouver를 떠나 알래스카 주의 남동쪽 섬들 사이 4 항구나 들르고 빙하 공원을 지나 Seward에서 하선하여 관광기차로 Anchorage까지의 정겨운 만남이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 아홉 부부 모두 18쌍이 관광하며 지난 날들을 되새기는 7박 8일이었다. 다시 젊어지는 묘약이 이것 말고 또 있으랴? 낮은 웃음 바다요 밤엔 신혼여행의 재현이니까 말이다.

밴쿠버 비행장에 한국에서 오는 동기 일행들보다 1시간 쯤 먼저 도착하게 되어 그들과 공항에서 만나 같이 택시 타고 호텔로 가기로 약속이 되었다. 동기랑 그들 부인들을 모시고 대기중인 리무진 3차에 모시고 호텔로 직행했다. (리무진은 미국 동기들의 배려로 장만된 것이다.) 모두들 지친 표정은 없고 어릴적 소풍가듯 흥분된 모습이다.

호텔에 도착해 쉬었다가 저녁을 먹자하니 한국 음식점으로 가자는게 대다수 의견이다. 다행히도 호텔 임원이 베트남계 젊은이인데 한국음식점으로 '장모집'이 좋다는데 밴쿠버 저녁 길을 끝없이 쏟아지는 대화를 나누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페를 지어 장모집에 들어가 방 한쪽을 잡고 앉아 먹고 싶은 음식: 물냉면, 돼지고기, 떡만두, 해물파전 등을 시키고는 빠질새라 소주 몇 병을 시켜 놓고 전배로 저녁을 시작한다.

다시 저녁 길을 누비며 호텔로 돌아와서 아침에 배로 가는 셔틀버스 스케줄을 맞춰 각자 방으로 갔다. 남편이 자기 집이 같이 도착하지 않아 단발 신사 숙녀로 일주일 간을 지낼 일이 걱정스러웠다. 아침에 호텔 식당에서 만나니 반가운 소식은 남편네 집이 밤새 자기 방으로 배달 되었다. 우리 여행의 좋은 징조가 아닌가 라고 쾌재를 불렀다.

셔틀버스를 타고 항구에 닿아 입항수속을 마치고 배에 오르니 선장과 다른 임원들이 삼패인을 한잔씩 건네면서 맞는다. 술 좋아하는 동기들은 얼씨구나 였다.

오후 2시에 드디어 실버 웨도우는 밴쿠버를 떠나 북쪽으로 케치칸을 향해 떠난다. 모두들 짐을 풀고, 약속도 안 했는데 식당 갑판에 다 모여 늦은 점심들을 하면서 포도주, 칵테일, 맥주가 술술 목을 넘어가니 떠나는 밴쿠버 항구를 바라보며 어린애들처럼 마냥 좋아진다. 선장의 칵테일 파티가 있다 하니 너무 마시지 말기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조금 쉬기로 한다. 한국에서 온 동기들이 시차로 졸리울 때가 아닐까?

저녁 때 파티 장소로 한 사람 두 사람 짝꿍끼리 모여 로비 앞에 모이니 모두들 멋지게 입은 미남 미녀들이 모인다. 선장의 환영 인사와 앞으로의 진로 설명이 있고 삼패인 두어 잔을 마신 후 모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우리 36명이 식당에 들어가니 웨이트레스가 알아서 식당 가운데 자리를 우리들에게 지정한다. 모두들 섞어 앉아 서로 인사들을 다 시하고 각 테이블마다 전배를 하면서 그냥 즐겁기만한 초면 구면 인사들을 나눈다.

배는 요동도 없이 미끌어져 가고 정답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빨강, 흰 포도주는 거리낌 없이 미끌어 내려간다. 음식의 대가인 병원은 불란서요리, 거

위간에, 달팽이 접시를 즐긴다. 잔은 빌새라 다시 채워 지고 대화는 무르익어가니 지나간 세월이 갑자기 담겨 지어 어느새 해부학 실습장에서 계단 교실로 다시 모여진다. 어디서 라일락 향기가 나는 듯 하다. 아니면 부인들의 향수인가?

우리는 제시 준비에 칸닝구 개구쟁이 학동으로 변신해 포도주 잔을 소주 잔 마시듯 훌쩍훌쩍 하니 금방들 별경게 취기가 들어 보기에 좋더라. 저녁을 마치고 여행 피로와 술에 적당히 취해 각자 방으로 가니 이게 신혼 첫날 밤 같지 않은가.

현우가 "옆 방 손님 잠 좀 자게 조용히 자라" "알았데이" 병원이 대답이다.

실버 웨도우는 밤새 항해해서 아침 빛에 잠이 깨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해안과 불이 보인다. 밖은 구름, 안개가 끼었고 바깥은 차다. 캐치칸에서 아침 일찍 탐방 여행이 약속 돼있어 샤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니 벌써 여러 동기들이 나와 있다. "잘 잤나?" "응 잘 잤지" 모두들 건강한 기색이다.

투어 가이드가 우리를 찾아 버스로 토렘 동네로 간다. 이곳은 시내에서 떨어진 외딴 연안으로 옛날 인디인들의 토렘을 재생해서 이곳에 모아 세워 문화 보존을 하기 위한 곳이란단. 토렘은 수 백년 된 오리지널도 있지만 대부분 원래의 것을 보고 그대로 다시 깎아만든 것으로 작은 사람은 잘 알려진 예술가라 한다. 한 가운데 인디언 추장 집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집이다. 넓다란 정사각형의 휴



바다에 보이고 사방에 빙 둘러 마루가 깔려있다. 각 방마다 가족들 자리가 정해져 있어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았다는 것이다. 높은 지붕 가운데는 구멍이 있어 연기가 빠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들어오는 입구는 의외로 작아 우리들도 고개를 낮추어야 다닐 수 있다. 추위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대들보를 바치는 기둥도 토렘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토렘은 그냥 모양을 만든게 아니라 그것이 모두 이야기란다. 독수리는 불을 훔쳐 인디언에게 주어서 항상 맨위에 조각했고 곰, 고래, 곰은 싸워야 할 적으로 존경을 받는 등 토렘의 모양은 마치 이집트의 옛 문자를 읽는 듯 하다. 탐방이 끝나고 시내로 들어오다가 일부는 유명한 알래스카 키크랩을 맛본다고 음식점으로 가고 일부는 배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칵테일 라운지에서 석규 동문의 사회로 우리들의 모임(개막식)을 가지게 된다. 모두들 모여 먼저 돌아가신 동기들 여섯 명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서 미주 동기회장의 환

영 인사가 있었다. "여러분들의 기억 창고에 아름다운 경치와 우정을 많이 남기고 맛있는 음식, 술도 즐기며 동기모임을 즐기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식사 때는 미주 동기는 한국동기들을 돌아가며 한 분씩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짝을 맞추어 셋 중 하나의 식당을 찾아 저녁식사와 담소를 즐기는데 실버 웨도우는 항구를 미끄러져 나와 주노로 향한다. 밤은 그렇게 익어갔다.

아침 일찍 베란다에서 보니 주노 항의 날씨는 맑고 공기도 신선하다. 조그만 배들이 한가하게 뒷산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태로 배를 맞는다. 늦은 아침에 탐방이 시작되니 모두들 여유있게 모여 앉아 아침식사를 한다. 불현듯 학생시절 수학여행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나 얼굴들을 보면 늙어도 자세히 보면 모두들 동인이다. 흥용 이르기를 "남


자는 늙었는데 여자들은 나이를 먹지 않은 것 같다." 기억속의 남자들은 옛날 얼굴인데 눈앞에 보이는 얼굴은 변한 얼굴이라 뇌 세포가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투어버스에 오르니 운전사가 우리 또래의 여자인데 이 분이 걸물이다. 하와이에서 이곳에 와 산다

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말로 인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우수계 소리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심심치 않게 한다. 우리를 배 부두에 떨어뜨리니 젊은이가 우리를 모터보트에 태운다. 배 선장은 젊은 늘씬한 여자다. 배를 익숙하게 몰아 부두를 떠나니 파도가 일지만 속도가 빨라 항상 파도 위를 달려 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곳에서 고래구경을 한다. 과연 열마를 지나다 보니 고래가 숨을 쉬면서 물 줄기가 분수처럼 오르는게 보이며 곧 커다란 등치에 꼬리를 하늘로 향하며 물속으로 다이빙하는게 보인다. 모두들 환성을 지르며 사진기를 들이댄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저기 있다" 고함을 치면 모두들 우르르 그쪽으로 향한다. 참일 부인이 가장 잘 찾아내어 "심 뵈다 부인" 이라는 별호를 얻는다.

고래 몇마리를 보고 보트가 부두로 돌아오니 하와이 아줌마(할매)가 운전하는 버스가 기다린다. 멘헨홀 빙하를 보여주고 사진을 찍으라 한다. 그 앞

"Hello, 'Boredom'"



이홍빈(63, 대뉴욕)

가슴에
멍이 드는
엄청난 통증이면 모를까/
강위에서
날날이 썩 놓는
이름들 되 뇌울일 있으면 모를까/
산도 보며
강위에서 늘어놓을
이름들 남았으면 나올갑다
그만한 가슴에서
아픈인 거면
혹여 남았는 이름 강위쓰며/홀리며 그걸로 나올갑다
적적할새 없이
외우는 이름/홀려간 이름들
강위에서 다시 썩 내려감 그걸로 혹여 나올갑다
엄청 아픈일
그렇=리 없으면야
몽개고 또 쓰고/앞에서 강물위 띄울일 없으면야
넘 너무
적적해
잊은이름/뇌운이름 홀려보낸 이름들로 차곡차곡 살갑다.

에서 모두들 사진찍고 "와" 하고 탄사를 내고 좋은 구경했다고 이구동성이다. 구경이 끝나 배로 돌아오니 오후 2시경이다. 풀장 그릴 음식점만 열려있어 모두들 그곳에 모여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를 즐겼다. 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수다들을 떨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들 품령회를 열었다.

풀장 그릴에서 단체 저녁식사를 하기로 되어있어 방에 가서 잠시 쉬고 모두들 다시 만나기로 한다. 배가 항해 중이라 바람이 부니 모두들 추위에 맞게 입고 나오라는 주의를 받고 방에 들어와 캐나다 클럽 위스키를 한잔 따라 몇 모금 마시다 잠이 들었다. 깨어서 부랴부랴 풀장으로 나가보니 이미 몇몇이 나와 칵테일 잔을 들고 저녁공기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바다냄새를 못 맡는다. 물 온도가 낮아서 인가? 별들이 보이기를 바랬지만 구름에 가려 배의 등불만 보인다. 모두들 목도리, 모자로 감싸고 앉으니 남자들 두 테이블, 여자들이 한 테이블로 나누어 앉게 되었다. "여자끼리 앉는게 편해요" 우리는 "남녀 칠세 부동석에서 남녀 칠십세 부동석" 까지 고집하며 사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해도 해도 모자르는 이야기를 따라주는 적, 백포도주에 섞어 바람에 흩날려 보낸다.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지금 지금 소리가 난다. 알고 보니 화산 돌을 불에 달구어 그위에 스테이크를 놓으니 스테이크는 먹을 때도 계속 익는다. "머리털 나고 여태까지 먹은 스테이크 중 그중 최고다" 모두들 포도주에 고기랑 별맛을 즐기느라 수다가 없어졌다. 여자 쪽으로 가보니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새우구이는 못 먹겠다" 한다. 이곳도 칼질 소리만 난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들 한마디로 "이 저녁이 이번 쿠르즈의 절정이다." 음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어지간히 즐겼거나 포도주 잔을 많이 비운 성 싶다. 주노의 밤 하늘을 고기 태운 냄새로 고시래를 하고 우리는 깨끗한 침대로 기어들어 맛있는 <다음번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잠을 자고 내일의 탐방을 기대한다.

아침 일찍 모여야 하기에 톨 서비스에 아침을 마치고 스캐그웨이 항구에 내려 모이니 호균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현우가 다시 배안에 가서 지각생 호균과 부라부라 나온다. (신혼여행이 맞는가 보다.)

스캐그웨이는 1896년에서 1899년까지의 소위 클론다이크 골드러쉬라 해서 행운을 노리는 미주 전체에서 거의 100,000 명이 유콘강의 클론다이크로 금광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들을 이용해 돈버는 사람들로 세워진 도시다.

금광을 가기 전에 이 도시에 모여 화이트패스 정상을 넘어가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기나 캐나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일인당 식량 1톤씩 가지고 와야 입국을 허락했다 한다. 그 짐을 지고 873m 정상 눈길을 넘어가야 했다. 많은 말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추위와 실족으로 죽어서 dead horse trail이라는 별명이 붙은 길이다.

예나 지금이나 공짜라면 양젖물도 마신다더니 너무나 무지한 욕심이라 할까?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황재한 사람은 손톱을 만큼 몇 안되고 모두 빈털털이가 되거나 동사했다 한다. 돈 번 사람은 이들을 이용해 스캐그웨이에 호텔과 브로델을 운영한 사람들인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트럼프의 할아버지란다. 희한하게도, 보여준 사진에 의하면 그 할아버지 머리 모양새가 손자의 머리 모양새와 똑같더라. 그러기에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옛말이 있지 않던가?

이곳의 묘지에는 악명의 사기꾼 비누장사 스미스의 무덤이 있어 구경 갔다. 비누는 홀아비들의 필수품(이유는 상상에 맡긴다)으로 비누를 팔기 위해 스미스는 \$100 짜리를 비누에 숨겨놓고 선전하기를 "금은 비누에서 찾아라" 했다는 것이다. 몇번쯤 하다가 소문이 나기 시작 할 때부터는 돈 한푼도 넣지 않고 비누만 팔아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비누장사는 결국 제 파트너 총에 맞아 죽어 여기 묘지에 묻힌 것이, 지금은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린다. 이 곳에서는 꽃다운 나이의 여자들의 무덤이 많은데 모두가 부로델에서 일하다 죽은 여자들이다. 인생 산다는게 동서 차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70세살살이가 허망하게 느껴지려 한다.

자동차로 정상에 오르니 바람은 쌀쌀하게 불고 보이느니 삭막한 돌산에 눈이 점점히 남아있고 빙하 녹아 내리는 폭포들이 여럿 있다. 한 군데에서는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동서로 나뉘어 흘러 한쪽은 미국쪽으로 다른 한쪽은 캐나다쪽으로 흐른다. 이 갈라지는 지점이 또 대륙의 나누임(continent divide) 장소라나. 미국도 크지만 알래스카도 어지간히 크다. 모두들 국경 표시판에 모여 기념사진들을 찍고 엄청난 대지의 경치를 만끽했다. 배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저녁식사를 호균 내외와 같이 하자고 전화로 약속해 놓았다. 호균씨는 나보다도 연배가 높다 생각되는데 학생때 거의 한번도 대화를 한 기억이 없어 같이 식사하며 알고 싶었다. 손자가 대학 갈 나이라니 과연 우리들보다 앞서기는 했다. 내 기억으로는 계단 교실에서 강의 들을때 매일 조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때 이미 자식 농사에 바쁜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처음으로 친밀하게 부인과 같이 알게 되서 기뻐다. 다음에 만나면 농담도 할 수 있으리라.

매일 저녁 후에는 밤 하나를 차지하

고 빠아 서비스를 받으며 우리들끼리의 모임에서 거의 반 백년을 상기하며 쌓아온 지혜와 덕담도 나누었다.

미주 동문들중 반 이상은 은퇴한 듯 하나 한국 동기들은 대부분 일하고 있다. 남아 있는 기간이 짧아짐을 직감하고 의료에서 취미와 건강 유지 생활로 전향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은퇴 과정에서 부인과 가정 생활의 변화에 적응 대책을 상의했다. 이젠 설거지도 하는 동기들도 꽤 있는 걸 보고 안심했다. 적절한 은퇴 계획이 없으면 가정 생활의 불안정이나 은퇴후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대책으로 부인과 같이 즐길 취미 생활을 찾아 보거나 노인대학에 입학하는 동문도 있다. 경제적인 주도권이 부인한테 가니 불안해서 어떤 한국동기는 자기비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데 미국동기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의아해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배에 대해 성장한 자녀들에서 미리 나누어 주어 그들을 도우는데 좋은가? 아니면 자녀들도 그들의 삶을 나름대로 세워야 좋은가?

실버세도우는 한바퀴 돌아 오던 길을 되짚어 몇 백만년 전 빙하로 만들어진 해협을 빠져나와 다시 북상을 해서 시카쪽으로 항해를 한다. 큰물에 나오니 배가 약간의 요동을 쳐서 밤잠을 방해한다. 시카에 도착, 아침을 마치고 시카 도시를 탐방하기 위해 하선을 한다.

시카는 어업의 도시로 통조림 공장이 관광의 목적물이다. 다시 버스로 찾아간 곳은 고아가 된 곰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호하며 키우는 "곰 고아원" 이다. 그곳에는 독수리가 많아 연어를 던지면 독수리가 날라와 공중에서 채간다. 70세 어린이들은 모두 경탄이다. 집어가서 손주에게 자랑하려고 열심히 사진기를 들여댄다.

투어가 끝나고 시카 도심지에 내려 기념품 쇼핑을 하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알래스카 킹크랩이 유명하다는데 찾아가 살 좋은 킹크랩을 시식한다.

저녁식사 전에는 홀 북도에서 퍼팅 대회가 부산스럽다. 부인들도 질세라 열심이다. 저녁은 마지막 이별식사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포도주 잔을 나누며 작별인사로 바쁘다. 저녁식사 후에 카드룸에 가보니 몇몇 카드 골수들이 "담 대가리" 운운하며 마이트를 한다. 옛적 계단 교실 옆방에서 추구려 앉아 하던 패들이라 기념사진 한 장 찍어 두었다. 참석않은 동기들에게 "용용 약 오르지" 할 사진이다.

다음날 아침 스위드에 도착 드디어 하선할 때다. 여기서 앵커리지까지 약 4 시간의 기차 여행이다. 짐은 앵커리지 비행장에서 찾기로 한다. 병원의 재빠른 재치로 우리 모두가 한칸에 다 탔다. 기차는 서서히 달리기 시작하며 알래스카의 절경, 산, 물, 계곡, 호수, 숲, 동물을 보이며 달린다. "김밥을 여기서 까 먹어야 제 맛 일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배 식당에서 가져온 과자로 대신 해본다.

C. S. Lewis에 의하면 우정이 서양 고대시대엔 최고의 사랑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선 더할나위도 없이 중히 여겨져 왔다. 화랑도 정신에도 봉우유신이라 하지 않던가? 이번 재상봉에선 대학시절에 공부 경쟁하느라 소원했었던 벗과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한 우정의 기쁨을 만끽하니 이 만남이야말로 불로초가 아닐 수 없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기약 하지만 7순의 의사 부부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러다 앵커리지 역에 도착하니 바로 비행장이 역이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작별 포옹을 하고 50주년에 만나는 약속을 하며 헤어진다.



시계탑(時計塔)

서윤석 (68, 버지니아)

안개가 걷힌 허드슨 강가에서
우렁찬 첫 울음 소리 들렸어라
날개를 훨훨 저으며 비상하여
넓은 바다를 건너온 *시계탑이여
험준한 대륙을 달리는 개척자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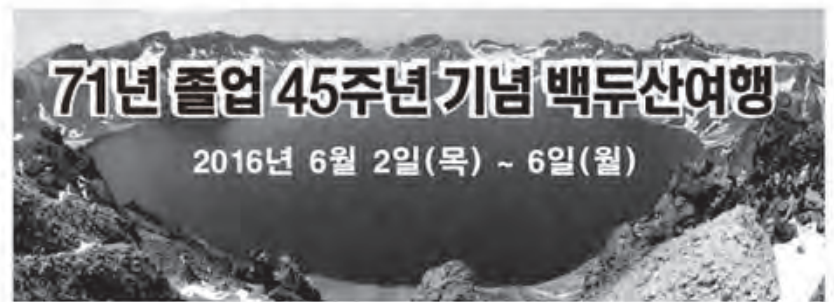
그대는 우체부 가방 속의
젊고 고우신 어머니의 얼굴
어여쁜 첫사랑의 모습도 담아서
늘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
그대의 목소리 울려퍼지는 이 땅에서
우리 말로 정다운 노래를 불러봅니다

고마우신 여러분들
시계탑을 편집하신 위원님들
아름다운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반갑게 읽어주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생일
사십년 세월 땀 흘리며 가꾸어낸
축복 받은 우리의 역사(歷史)
뿌리 깊은 든든한 나무가 되어
두 손 높이 들고 노래를 불러봅니다
성대(聲帶)가 터지도록 불러봅니다

새벽에 솟아오르는 해님이여
눈부신 아름다운 얼굴이여
그대는 희포크라테스의 영광(榮光)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대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우리의 사랑이여
시계탑 시계탑이여

*시계탑: 서울대학병원의 본관, 상징적인 역사적인 건물로서 1908년 설치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계탑(왕의 의지를 상징함)이며 사적 248호이다. 미주서울대 동창회보를 처음 발행하던 1974년, 그 회보를 '시계탑'으로 명명하였다. 미국에서는 미주한국일보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한글로 발행된 신문이다.



25회 71년 졸업 동문 기념여행이 백두산으로, 2016년 6월 2일~6일에 가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지만 마음먹어야만 갈 수 있고, 국내와 미주 동기들이 모두 관심이 있고 뜻깊은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백두산이 결정되었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네 곳인데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북파 코스와 천지사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서파코스를 4박 5일로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북파코스는 차림으로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 인천공항을 출발 연길에 도착. 한국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두만강 강변공원을 즐기고, 연길 시내관광, 진달래관광 관광을 합니다.

2 일: 백두산 서파코스로 이동합니다. 정상에 올라 천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화산의 용암으로 생성된 금강대협곡으로 이동 합니다.

3 일: 백두산 북파코스로 이동합니다. 차림으로 천문봉까지 올라 가서 관광 하실 수 있습니다. 백두산 용암에서 끓어 나온 온천수가 흘러내려 오는 모습을 봅니다. 온천지대, 장백폭포, 녹연담, 소천지등을 관광합니다.

4 일: 백두산에서 내려와 연변자치구에 있는 이도백화, 용정, 연길 등으로 이동하면서, 27세의 청년의 나이로 일제 감옥에서 숨을 거둔 민족시인 윤동주시인이 다니던 대성중학교 (현 용정 제일중학교)를 둘러 서시가 새겨져 있는 윤동주시비와 기념전시관을 봅니다. 해란강, 일송정을 지나며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명동촌으로 향해 복원된 윤동주시인의 생가를 방문한 후에 연길로 이동합니다.

5 일: 연길 공항으로 이동,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미주동기회장 김창구 ckk0602@gmail.com

우리의 골프 이야기 (3)

윤영옥(63, 후로리다)

9월 16일 Carnoustie Golf Links

우리가 친 마지막 골프코스는 "very difficult course, but if it is windy, impossible to play well" 하다는 Carnoustie였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청명한 좋은 날이었습니다. 첫홀을 tee-off하고 나니 앞에 있는 개울이 빗물로 넘쳐 나서 남자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넘어가고, 우리 여성들은 각자의 캐디들이 등에 업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캐디는 우리 마나님들 중에 키가 큰 사람을, 키가 큰 캐디는 작은 분을 업고 건넌습니다. 18홀에 오니까 물이 많이 빠져서 건너 가는 다리가 말라 있었습니다.

몇년 후에 The Open 마지막 날, 이 개울에 불이 들어 갔는데 벌집을 먹지 않으려고 개울에 들어가서 치다가 승리를 놓친 불란서인 Jean van de Velde의 일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Golf in Spain (September 1990)

우리 4부부(고영희, 송영덕, 이종두와 우리)가 다시 InterGolf를 통해서 10월 간의 Spain Golf에 나섰습니다.

Main golf target은 Europe의 Augusta National (The Masters가 열리는)이라고 불리는 Valderrama Golf Course였습니다. 10월 13일 아침 Malaga 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안내자와 다른 동행자 4부부를 만난 후 버스를 타고 Costa del Sol 해안을 따라 Hotel Sotogrande에 도착했고 오후에는 Gibraltar를 구경했습니다.

다음날 Valderrama에서 쳤습니다. 이 코스는 1974년에 Robert T. Jones, Sr.의 설계로 지어졌는데 1997년 Ryder's Cup을 위시하여 Volvo Master, Amex Championship, Andalucia Master Tournament가 열리는 곳입니다. 현재의 주인이 먼저 주인에게 가서 "이 코스 나에게 파시요" 하니 "코스 안 팔립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고 사려는데요!" 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날도 주인이 나와서 인부들을 지휘하여 코스를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골프코스는 바다가 바라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코스였습니다. 골프조(組)를 매 10여분씩 내 보내는지 우리 앞과 뒤 그룹이 보이질 않은 '대통령골프'를 쳤습니다. 한바퀴 돌고나서 club-pro에게 우리가 미국에서 왔는데, 골프코스가 너무 아름다워니 좀 더 쳐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선뜻 승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캐디도 없이 해가 떨어질 때 까지 치고 들어왔더니 pro-shop은 닫혀서 아무도 없고, 물론 우리가 타고 왔던 버스는 우리 사모님들과 다른 4부부들을 태우고 먼저 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호텔까지 얼마 안되는 거리를 골프백을 짊어지고 걸어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골프화의 저벅저벅 나는 소리에 맞추어 우리는 노래를 힘차게 불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도 우리의 호텔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어지고, 길 양쪽의 집들(대저택-이곳은 유럽의 부자들이 겨울에만 사는 곳)에서는 개들만 지저대고, 만나는 사람들은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해서 우리는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는 길 한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세웠는데 다행히 한 여인이 영어를 하고 우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헤매게 된 것은 골프코스에서 나오면서 두번째로 만나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것을 우리가 미리 첫번째 길에서 돌았기 때

문에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호텔 근처에 있는 'Spain 공인' Surrealist Artist인 Salvador Dali Store에 가서 Dali의 부인 Gala의 모습이 들어 있고 Dali의 sign이 들어있는 necklace와 장식용 접시들을 사았는데 상점에서는 진짜라고 보증 한지만 우리는 그러려니 합니다. 다음날에는 거기서는 꽤 유명한 Sotogrande Old Course에서 쳤습니다.

10월 16일 우리는 Costa del Sol 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앞으로 4일밤을 지낼 Hotel Mijas로 옮겨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Mijas 코스와 Torrequebrada 코스를 치고 Granada에 있는 Ahlambr Castle (Islamic)을 관광하였는데 여기에는 Gabriel Faure가 즐겨 찾아와서 작곡도 했다는 fountain이 있습니다. 지금 갈아서는 iPod로 Faure의 곡도 몇 곡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17일 저녁에는 spanish dance를 perform하는 식당에 갔고 19일에는 스페인 전통음식 Paella도 나오는 farewell dinner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서 Madrid를 2시간에 걸쳐 버스를 탄채로 city tour를 했습니다.



Golf in South America - 1992

12월 6일 우리는 Ladatco Tour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12일간의 남미 골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마이아미에 모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비자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공항에 가니까 비자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고영희, 이종두 그리고 우리 부부가 시무룩이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던 송용덕 부부가 싱글클럽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자기네들은 먼저 도착하여 떠나지 못 할 것을 미리 알고 stone crab leg으로 유명한 Jones Crab House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길인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Jones Crab House에 가서 저녁도 먹고 또 Doral Country Club에 가서 골프도 치자고 하였습니다. 해당 여행사가 자기네 인맥을 통해서 응급으로 비자를 받아 주어서, 여행사의 비용으로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떠났습니다.

우리는 Sheraton Hotel at Rio에 여장을 풀었는데 저희 방들은 가깝게는 Ipanema Beach와 멀리는 산위에 Christ, The Redeemer가 보이는 방들이었습니다. Rio에는 2개의 골프코스가 있는데 첫날 우리는 Gavea 골프클럽에서, 둘째날은 Itanhanga 골프클럽에서 쳤습니다. 두 코스 모두 산길을 따라 해변에 지어진 아름다운 코스였습니다. 2016년 Rio Summer Olympic때에 골프는 여기 Gavea와 또 다른 한 코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불을 찾으러 rough에 들어 갔다가 '왕'모기에 혼도 났고 우리가 잘못쳐서 불이 연못에 들어가면, 캐디들이 기어코 물에 들어가서 주워 자기네가 갖고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는 새 불 하나가 caddy fee와 맞먹는 것을 알고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The Statue of Christ The Redeemer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Ipanema beach의 식당에서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인들께서는 H. Stern에 '초대'되어서 (남편들도 따라가는 입장) 브라질에서 생산되었다는 emerald jewelry도 샀습니다. 우리는 6일을 Rio에서 보내고 Iguaçu 폭포를 비행기로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해서 처음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이 거기러니 하고 내렸다가 곧 다시 타는 실수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이 폭포는 정말 장엄 했습니다.

Golf at Buenos Aires, Argentina

다음날 우리는 Buenos Aires로 갔는데 그때는 페론 대통령과 그의 부인 (Eva)이 사회주의적 populism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거덜이 나고 경제공황이 왔다가 겨우 회복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1891년에 지어진 Club Atletico Lomas와 Olivos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쳤는데 그린피는 \$3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Lomas 클럽에서 만난 한국교포들에 의하면 이 코스는 일주일에 하루만 멤버가 아닌 골퍼에게 개방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9 de Julio Avenue, 여기에는 6x3=18개의 lane이 있고 또 6 lanes사이에는 그 만큼 넓은 나무들이 잘 심어진 median이 있으며, 넓은 양쪽 보도(歩道)에도 나무들이 잘 심어놓아 참 아름다웠습니다. Eva Peron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에 가 보았더니 아직도 국민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The Artists Street 등을 구경하고 조그만 그림도 하나 구입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Barra Grill이라는 남미 혹은 브라질리언 바베큐 식당에 가 보았는데 거기서 한 그룹의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남미의 여행상품을 개발하려고 온 한국여행사 직원들이었습니다.

Four Seasons Hotel in Nevis Island

이종두군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0월 30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당시 The Travel Magazine이 'the best resort in the world'로 지정한 Nevis Island의 Four Seasons Hotel로 갔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가 신혼여행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아미에서 San Juan, Puerto Rico를 거쳐서 경비행기를 타고 St. Kitts로 간 다음 쾌속보트로 40분쯤 가면 Four Seasons Hotel과 이 호텔에 속한 R T Jones, Sr.가 설계한 골프코스 하나만 있는 조그만 Nevis Island에 도착 합니다.

송용덕 부부는 다른 비행기로 약간 늦게 St. Kitts에 도착 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쾌속보트가 가서 모셔 왔습니다. 쾌속보트의 선원이 자기네 승락을 받고선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마치 수상비행기를 탄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호텔은 역시 세계의 최고답게 서비스도 좋았고 음식도 좋아서 멀리 온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최고로 비싼 호텔방은 당시 \$10,000/day인데 sail boat with crews가 따라오고 떨어져 있는 무인도를 쓸 수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찰스황태자 부부 이후에는 쓴 사람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Golf in Australia-1994 가을

다시 'Once in a Life Time' 이라는

막걸리



소수 김택수(63, 라스베가스)

막걸리 익어가는 향아리 두경열면
막걸리 익어가는 보골보골 방울들 터지는 소리
멀리서 오고있는 내 친구 발자국 소리같이
막걸리 익어가는 향긋한 내음
바람결에 불어오는 내 친구 내음같이
내 친구 오기전에 익으라고 나무주걱으로
정성스레 저어본다

기치 아래서 1994년 10월 30일 두주간의 일정으로,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좋다는 Royal Melbourne 골프코스를 쳐보려고 호주관광여행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두 만나서 떠났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3일을 지낼 Le Meridien Hotel Melbourne에 우리의 가이드겸 호스트인 그 때 70세쯤으로 보이는 Mr. Laurie McSorley의 안내로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1시에 Royal Melbourne 골프코스에서 쳤습니다. 여기는 private club이지만 他國의 인정된 골프클럽에서 현 핸디캡 카드와 클럽프로의 소개장이 있으면 손님이 칠수 있도록 하며, Australian Open이 자주 열리고 President Cup도 열렸던 곳입니다. 우리는 Alister Mackenzie가 디자인한 West Course에서 쳤습니다. 세계 각국의 뉴이어 이브 불꽃놀이 풍경에 잘 나오는 Melbourne Bridge와 Museum을 구경하고 마침 열렸던 Spring Festival을 구경 하면서 우리도 젊은이들과 같이 길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습니다.

다음날에는 Cape Schanck 코스에서 쳤습니다. 우리의 안내자 Mr. McSorley는 우리를 고급식당으로 안내 하였으며 여행사에서 우리 식사의 한정가를 정해 놓지 않았으니 마음대로 주문하라고 권한 했습니다. 꽤 비싼 음식을 먹었죠!



한 일류 식당에서는 일본사람들이 버스로 많은 장애인들을 인도하여 식사하러 온 것을 보고 과연 일본은 세계의 일류국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도시, 즉 Sydney, Gold Coast 그리고 Cairns로 이동 할 때마다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harbor cruise를 하고, Waratah Park에 가서 koalas와 kangaroos를 구경 했습니다.

골프는 Camden Lakes에서 쳤습니다. Gold Coast에서는 Palm Meadows, Hope Island 코스, Robina Woods 코스에서 쳤고, Cairns에서는 Sheraton Mirage 코스, Paradise Palms 코스에서 쳤습니다. Great Barrier Reef 관광도 하였는데 특히 송용덕이 snorkel을 즐겼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opal이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며 값이 저렴하다고 하여 한번 구입해 보려고 여러 보석상에 들렀는데 좋은 오팔은 다이아몬드보다(제 생각으로는) 더 아름다웠으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결국 탐나는 것은 사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중 13번의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4년 7월 2일 ~ 2015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 1950 이철남
- 1952 김은태 김정준 김진문 박종식
- 1954 이동식 이은희
- 1956 김신형 김익창 도상탁 민병각 박상기 서상철 신명수 유호준 주창준
- 1957 김양호 김일훈 김용진 박건호 이동성 이민자 임종식 임종원 정구영 정진욱 주명식 한성택 홍재홍 차봉희
- 1958 김기태 김백년 김순옥 김석희 김수산 김운범 김시한 김학륜 류치열 분석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이동목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종국 이종용 이희성 최병두 최정희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용덕 김은섭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용근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이영모 이종수 임낙중 정태진 한달수 한성업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채규철
- 1960 권기홍 김완주 김영환 김인환 김택경 김창수 박병근 박병돈 박정우 박형순 박춘명 염극용 오신중 이덕송 이상일 이순환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 1961 강세부 강창욱 광동린 고의걸 김성준 김영기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박승균 박준환 서취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정두현 장성환 정의철 정철용 조은순 차철준 최공창 최성덕 최용성 최지원 최태순 한수용 한혜원 황현상
- 1962 구정용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근 남성희 문상규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손영진 송영두 오대요 유충국 윤홍철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장병호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최영수
- 1963 권영조 권영재 고영희 김갑중 김계운 김승태 김정일 김주용 김충열 김태용 김태형 김택수 김현철 김현하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이기환 이능석 이법세 이수인 이승현 이병준 이재명 이종두 이형근 임춘수 정관호 조영하 조한원 진병학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추재욱 선우건영
- 1964 강영호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박한영 방효준 신두식 신영찬 안연승 양운택 오유섭 유광현 유효명 유창남 이광신 이용만 이유찬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주영 이종우 이홍표 임병준 정유석 정인태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표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김옥현 구경희 민경탁 박수안 백길영 서좌일 손광호 신백효 오수환 이광선 이법석 이재진 이정희 이한승 이화성 임현재 장재찬 전영근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영인 한재은 홍수용 황규정
- 1966 광일성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진수 김은한 김충규 남궁승 노규상 민발식 윤명선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병식 김상복 김성철 김태용 문경용 박정일 박종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준식 이진수 유진일 육택식 최무용 최승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희주 김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서진석 송창호 신용계 안세현 안극환 이건일 이대용 임공세 정재성 차재철 최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홍서 박수용 송용재 엄규동 육순재 윤효운 이창호 임인무 임용규 조중행 최종일
- 1970 김형달 노승국 문성길 방준재 송요준 여준구 유희희 오석일 이성춘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택수 김효순 김훈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이성길 이원택 이진영 장문석 장철 정인용 조세진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관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장혜숙 최인섭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무섭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방병기 성갑재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이계석 임준형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용진 이진현 유영준
- 1975 김병호 김자여 김원정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 1976 김대중 김정아 유영걸 정경화 한승신
- 1977 강준희 김동훈
- 1978 허경열
- 1979 이승호
- 1980 박남훈 신성식
- 1981 남명호 박범열 이명호 최선희 한창규
- 1982 서은희
- 1983 김봉섭 심인보
- 1985 박종효
- 1988 서예경 신원석
- 1989 오두연
- 1991 홍정연 1994 남영재 안상훈
- 1996 안경흠
- 1999 김정훈 박성철 이도은
- 2000 황필규
- 2001 김태곤 장세권 정영태
- 2002 최태웅 허원재
- 2006 윤정현 2009 송경민
- 2011 김유리

32nd Convention Donation

- 이규용(41) 200 노용면(55) 1000 서상철(56) 200 최창송(58) 500 이문순(58) 300 김운범(59) 100 이운순(58) 225 한성업(59) 100 이영모(59) 100 채규철(59) 100 이종석(60) 100 임필순(60) 50 전용주(60) 100 강창욱(61) 100 김영철(61) 200 안창현(61) 50 이재승(61) 1000 이희경(61) 100 한수용(61) 100 황현상(61) 100 김석식(62) 100 송영두(62) 100 이상원(62) 100 김현철(63) 100 이능석(63) 300 이홍빈(63) 200 한기현(63) 200 추재욱(63) 1000 신두식(64) 100 오유섭(64) 100 김용두(64) 100 이홍표(64) 500 전희택(64) 200 조성준(64) 100 허선행(64) 120 최준희(64) 375 민발식(66) 100 이명희(66) 1000 김상복(67) 75 김명원(68) 200 김창남(69) 200 윤효훈(69) 100 강창홍(71) 1000 김성환(71) 500 조병선(71) 200 김유식(71) 100 김일영(71) 10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100 오상현(71) 100 윤기철(71) 500 오용호(72) 200 석창호(72) 500 김천일(73) 75 나무섭(73) 100 민인기(73) 100 박진섭(73) 100 서인석(73) 500 성갑재(73) 250 이계석(73) 100 임준형(73) 100 김원정(75) 200 John Baek 4000 서울대학교 의대동창회 3000 학술대회총 책 판매 저자(김영애, 김병석, 서문석, 이원택) 930

General Donation

- 강신호(52) 10000 노용면(55) 200 김익창(56) 250 주명식(57) 100 신상균(58) 200 이동목(58) 200 이희성(58) 75 강상진(59) 100 반용근(59) 100 정태진(59) 25 한성업(59) 25 권기홍(60) 1000 박병돈(60) 100 광동린(61) 200 박승균(61) 100 장성환(61) 100 최영수(62) 100 송용덕(63) 100 추재욱(63) 2050 김현학(63) 125 진병학(63) 50 김태환(64) 50 신영찬(64) 100 전희택(64) 100 박수안(65) 75 김성철(67) 75 이근웅(67) 100 이민우(67) 125 김형달(70) 200 오석일(70) 100 김유식(71) 75 박동수(71) 50 배성호(71) 100 장문석(71) 100 서상현(71) 75 오용호(72) 100 김천일(73) 1100 서인석(73) 500 심완섭(73) 100 임준형(73) 100 권철수(74) 50 최태식(74) 500 김명호(75) 100 배영훈(75) 100 심인보(83) 500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200 강상진(59) 500 김은섭(59) 400 이영모(59) 200 임필순(60) 200 한수용(61) 100 한혜원(61) 100 황현상(61) 100 이기범(62) 300 한기현(63) 125 박수용(69) 200 윤효운(69) 100 박진섭(71) 100 배성호(71) 200 서정자(71) 200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김용진(74) 100 김자여(75) 500 박범열(81) 100

Charity Fund

- 주창준(56) 25 최창송(58) 2000 김한중(62) 100 노인규(63) 75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최영자(66) 200 민인기(73) 200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Green Project Fund

- 이규용(41) 2000 이용길(62) 400 전희택(64) 100 민발식(66) 100 김주평(68) 100 윤효운(69) 100 배성호(71) 100 서인석(73) 2500 임준형(73) 100 박남훈(80) 375 서예경(88) 100

Community Outreach Fund

-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Member Directory Fund (2011.7 ~ 2015. 6.30)

- 박근수(49) 75 나무섭(50) 75 이상하(51) 100 강신호(52) 5000 노용면(55) 75 김익창(56) 50 김신형(56) 50 서상철(56) 200 임종식(57) 175 임종원(57) 300 유상환(57) 25 정구영(57) 30 차봉희(57) 10 김운범(58) 300 이만택(58) 200 이동목(58) 100 이운순(58) 300 임영신(58) 50 최창송(58) 50 김병구(59) 100 김용덕(59) 75 김은섭(59) 200 나길진(59) 250 정태진(59) 125 최종진(59) 100 최혜숙(59) 100 채규철(59) 100 박병근(60) 100 박춘명(60) 300 우병혁(60) 100 이순환(60) 75 이종석(60) 100 한성수(60) 150 강창욱(61) 50 김유홍(61) 75 양명교(61) 75 이한수(61) 25 이희백(61) 75 장성환(61) 50 진창건(61) 75 최용성(61) 100 최지원(61) 120 최태순(61) 75 황현상(61) 200 김한중(62) 150 민경환(62) 125 박종건(62) 100 송영두(62) 100 윤홍철(62) 75 이기범(62) 125 이상복(62) 200 이태봉(62) 50 권영조(63) 100 김현철(63) 275 송용덕(63) 50 이법세(63) 150 임춘수(63) 100 장세곤(63) 100 하상태(63) 200 한광수(63) 125 권정덕(64) 100 김용두(64) 50 김태환(64) 10 라찬국(64) 125 신두식(64) 100 신영찬(64) 100 양운택(64) 100 유창남(64) 100 이홍표(64) 300 전희택(64) 150 정인태(64) 30 허선행(64) 600 홍선경(64) 100 최준희(64) 500 이재진(65) 100 이한승(65) 50 이한중(65) 100 정길화(65) 75 한재은(65) 100 홍수용(65) 100 채도경(65) 100 광일성(66) 25 노규상(66) 500 이명희(66) 1000 장한교(66) 50 정양수(66) 50 조의열(66) 100 허서룡(66) 25 최순채(66) 75 이소희(67) 100 한영수(67) 100 서관우(68) 50 서윤석(68) 305 서진석(68) 50 안세현(68) 100 이건일(68) 100 차재철(68) 300 최철(68) 100 김중권(69) 200 변영석(69) 100 윤효운(69) 200 이승공(69) 100 이용환(69) 100 이창호(69) 100 방준재(70) 100 강창홍(71) 75 광승용(71) 1000 김성환(71) 50 김유식(71) 75 김일영(71) 100 김창구(71) 75 배성호(71) 100 서정자(71) 100 오동환(71) 200 이성길(71) 50 이원택(71) 75 이창우(71) 300 조세진(71) 50 석창호(72) 500 오용호(72) 200 정진우(72) 100 문대욱(73) 3000 박진섭(73) 100 방병기(73) 125 서인석(73) 500 오인환(73) 100 임준형(73) 400 조수현(73) 10000 권철수(74) 100 박인영(75) 50 김대중(76) 100 김승관(76) 100 김정아(76) 25 한승신(76) 25 김동수(78) 100 전영식(78) 100 최광휘(79) 500 이명호(81) 1000
- 1963년 졸업 동기회 500
- 1966년 동기회 1000
- 1973년 졸업 동기회 1500
- 서울대학교 병원 1000
- 북미주동창회 대뉴욕지부 1000
- 북미주동창회 시카고지부 1000
- 서울대동창회 대뉴욕지부 1000
- 브루클린 병원 500
- 한국뇌연구원 1000
- 유니온 인체 500
- 1964년 졸업 동기회 500
- 1969-70년 졸업 동기회 1000
- 서울대학교 의대동창회 3000
- 서울대학교대 미주재단 500
- 북미주동창회 남미주지부 1000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1000
- 서울메디칼그룹 1000
- 인증제고 동문회 500
- 아시아 관광 1000

동창회비 납입 및 후원금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15-June 30, 2016)

MEMBERSHIP DUES	\$125.00
IN TRAINING	\$ 50.00
GENERAL DONATION	\$
DONATION FOR 2016 CONVENTION	\$
COMMUNITY OUTREACH	\$
SCHOLARSHIP FUND	\$
CHARITY FUND	\$
GREEN PROJECT FUND	\$
TOTAL	\$

Name: _____ Class: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AA /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